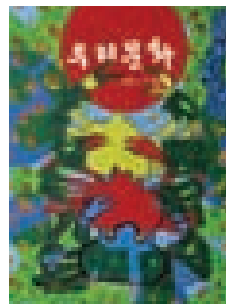


우리문화

차 례

• 통권 195호

02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08	문화원탐방 진도문화원
12	연합회 행사 건국 60주년 맞이 'I Love Korea' 청소년 대장정
15	연재 I 문화원장에게 듣는 우리나라 이야기
20	문화원이야기 I 서울 금천문화원
23	문화원이야기 II 대구 북구문화원
25	문경달빛축제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여행길
30	함께 읽는 시 천년의 고백
31	함께 읽는 수필 산을 오르며
34	특집 문화예술을 경영하다
35	세계의 문화예술교육을 가다
40	문화예술교육의 작은 텃밭 - 마을도서관
46	소외지역문화예술교육
50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문화교육
56	지역문화경영과정 사업소개
58	기획)한국의 문화 한국의 상장례문화
69	연재 II 아리랑 _ 경상도 아리랑의 가락 속으로
74	연합회리더 우리문화 소식
77	문화원 이모저모
91	원장동정



표지그림. 대개들의 달 구경 그림이 김중 광주서구문화원장 휘영청 뜬 달을 구경하러 대개들이 물러간 것을 묘사, 서정성을 강조한 그림으로 자연의 순수한 열정을 통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의 정화를 얻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둬.

등록번호 서울마02984 발행 한국문화원연합회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홈페이지 www.kccf.or.kr 전화 02)704-2311~3 팩스 02)704-2377 발행·편집인 최중수 편집위원 곽효환(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정호(진도문화원장), 김중(광주 서구문화원장), 정주환(어린이문화진흥회 이사장), 최원현(한국수필작가회 회장) 편집주간 채강희 편집팀장 문선희 편집·디자인·인쇄 (주)장안인쇄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4가 300-2 전화 02)2267-7642~3 팩스 02)2274-8332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 주십시오.)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가 3,000원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26대 회장으로 취임한 최종수 회장의 취임사

제1부와 본행사인 제2부, 그리고 오찬으로 이어졌는데 먼저 제1부 순서인 식전 공연으로 인간문화재인 안숙선 씨의 판소리 춘향가 중에 '사랑가'와 중요무형문화재 27호 승무이수자인 오은명 씨의 '승무', 경기민요 57호 전수조교인 이호연 씨의 경기민요로 취흥을 돋운 가운데 과천시 정애숙 아나운서의 사회로 참석 내빈 소개와 함께 축전 소개가 있었다.

국민의례에 이어 전국 지방문화원장을 대표해서 한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인 이선재 마포문화원장으로부터 권용태 직전회장에게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연합회 발전과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기에 전국 문화원장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면서 많은 박수 속에 공로패의 증정이 있었다.



24, 25대 권용태 회장의 이임사

곳에서, 또 보이지 않게 묵묵히 도와주신 은혜에 힘입어 지방문화원과 연합회를 대과 없이 이끌 수 있었던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마침 후임 회장이 향토사학자로서 추사연구회장으로서 또 매년 자치단체로부터 10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문화원을 육성 발전시킨 저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연합회 발전도 기

한국문화원연합회는 7월 11일 오전 11시 용산 전쟁기념관 내 뮤지엄 웨딩홀 크리스탈 볼룸에서 전국의 지방문화원장과 내빈 등 3백여 명의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권용태 직전회장(제24·25대)의 이임식과 최종수 신임회장(제26대)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 날 행사는 식전공연인

이어 연합회 사무국 활성화와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직전 회장에게 석별의 정으로 사무국 직원을 대표하여 장상호 총무국장이 행운의 열쇠를 증정한 데 이어 권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역 문화 진흥의 리더로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지방문화원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재임 기간 보이는

대해 마지않는다고 덧붙이는 한편 본인도 영원한 지방문화원장 출신으로서 후임 회장을 도와 열과 성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제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분으로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발걸음은 가볍다고 사회의 일단을 피력했다.

김이기 사무총장으로부터 최종수 회장에 대한 약력소개가 있는 다음 취임사에서 최 회장은 전임 회장께서 어려운 시기에 취임하여 지방문화원의 위상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우리는 세계화·개방화의 지구촌 시대에 향토문화와 세계문화를 함께 이끌어 가야할 과업이 있다고 전제, 누구나 문화의 고른 혜택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문화원 가족들은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지난 6월 12일 여러 원장님들이 보내 주신 성원을 기억하고 새기면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성공적인 발전을 다짐하였다.

이어서 안상수 의원(한나라당 과천·의왕)은 축사를 통해 인구 7만 5천의 조그마한 도시 과천에서 전국적인 문화단체의 수장을 배출했다는 것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본인도 힘닿는 데까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격려를 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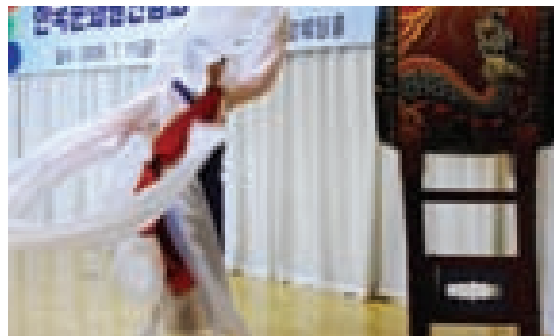
이성림 한국예술인총연합회장도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지난 반세기동안 향토문화의 보존, 발굴, 계승을 통하여 지역문화 창달에 주력해 왔다고 말하면서 오래된 나무의 내피는 새롭게 생성된 외피에 신진대사의 역할을 물려주고 자신을 지탱하는



24, 25대 회장이 건네준 연합회 기를 흔들고 있는 최종수 회장



인간문화재 안숙선 씨의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공연



중요무형문화재 27호 승무이수자인 오은명 씨의 승무 공연



경기민요 57호 전수조교인 이호연 씨의 경기민요 공연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하면서 소멸과 생성의 자연스럽고도 준엄한 순환 속에서 오늘이 자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우중 동작구청장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자치행정의 우선 과제를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토대로 떠나갈 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문화중심으로 주민의 일체감 조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평소 최종수 회장의 업무추진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어떤 기회, 어떤 장소에서나 최 회장과의 대화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거절할 수 없는 약속이 되어진다고 말하면서 과천시와 문화원의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여 많은 문화가족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권용태 직전회장으로부터 최종수 신임회장에게 문화원연합회기가 전달되고 내빈과 함께 기념촬영을 끝으로 2부행사를 마치고 제22·23대 회장을 역임한 이수홍 전임회장의 오찬 건배사로 공식행사를 모두 마쳤다. ☺



안상수 국회의원



이성림 예총 회장



김우중 동작구청장



여인국 과천시장

취임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이취임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특히 국정의 바쁜 일정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함께 하신 안상수 국회의원님, 이경재 국회의원님, 김우중 동작구청장님, 박용호 전 의원님, 여인국 시장님, 이성림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회장님, 김인식 전 해병대 사령관님, 신봉승 예술원 회원님, 전국 225개 지방문화원장님과 문화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향토고유문화의 진흥과 지방문화원간의 균형발전 그리고 우리조상의 숨결과 체취가 밴 전통문화의 발굴과 보존 육성 등에 크게 이바지해온 지방문화원과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창립 46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제24·25대 회장 이임식과 제26대 회장의 취임식을 함께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임하시는 권용태 회장님께서서는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신 탁월한 행정가로서 2003년 2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어려웠던 시기에 취임하여 5년 4개월간 재임하시면서 지방문화원진흥법개정을 통한 지방문화원 위상강화, 복권기금지원을 통한 소외계층대상 문화프로그램, 고령화사회 대비 지방문화원 중심 실버문화프로그램의 시행과 보급, 연합회 회관 확충 등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떠나시게 되어 섭섭한 마음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225개 지방문화원을 아우르는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세계화·개방화의 지구촌 시대에 향토문화와 세계문화를 함께 이끌어 가야 할 과업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독창성을 바탕으로 세계의 흐름에 걸맞은 문화 창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면서 우리문화가 거침없이 세계로 뻗어 나가게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에 차이를 두지 않고 누구나 문화의 고른 혜택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문화원 가족들은 배전의 노력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지방문화원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어려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문화원장님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여 지방문화원 활성화의 길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12일, 우리 문화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묵묵히 애쓰시는 여러 원장님들께서 보내 주신 대대적인 성원을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보태어 성공적인 항해가 이루어지듯, 원장님 한분 한분이 소중한 많은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저는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으로서 원장님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기억하고 새기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순조로운 발전을 위한 순풍을 기원하면서 힘차게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7월
한국문화원연합회 26대 회장
최 중 수

이임사

지역문화 진흥의 리더로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전국의 지방문화원장님과 문화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연합회를 대과없이 이끌 수 있었던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6년 전에 연합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던 것을 아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퇴임을 하게 될 때 원장님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면서 떠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느 시인의 시귀처럼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떠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나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저의 조그마한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이사회에서 저의 사표를 만장일치로 반려해 주시고 적극 만류하셨던 그 깊은 충정을 마음 속 깊이 새겨두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문화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모르는 희생과 노력으로 지역문화의 핵심적인 거점으로 성장해 왔으며 전국의 어느 문화단체보다도 확고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지방문화원이 이처럼 다양하고 특색 있는 금자탑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원장님들의 남다른 문화적 통찰력과 지도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영원한 지방문화원장 출신으로서 아쉬움과 애정이 깃던 연합회장 직을 떠납니다마는 여러분이 추대해 주신 고문으로서 후임 회장을 도와서 열과 성을 다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분으로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발걸음은 대단히 가볍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소설가 박경리 선생께서 쓴 시 가운데에서 '이제 버리고 갈 것만 남아 정말 마음은 홀가분하다' 고 하는 그 말씀이 그렇게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앞으로 자유를 만끽하고 문화가 흐르는 마을에 집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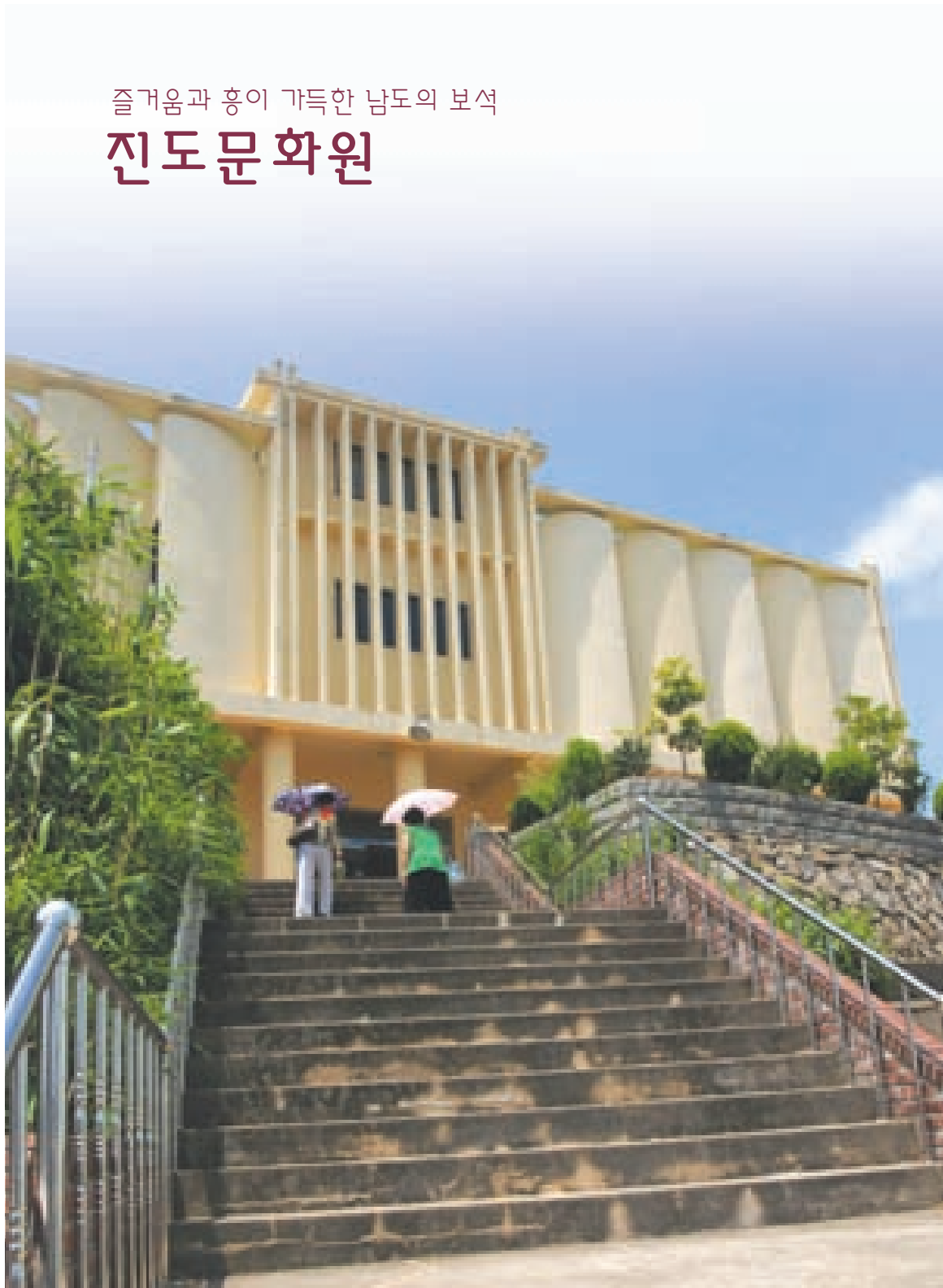
끝으로 제가 연합회를 이끌어 오는 동안에 본의 아니게 마음을 아프게 해 드렸던 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일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를 빌어 널리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애정 어린 질책과 뜨거운 격려로 부족한 저를 도와주신 여러분들의 의리를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2008년 7월
한국문화원연합회 24, 25대 회장
권 용 태

즐거움과 흥이 가득한 남도의 보석

진도문화원



“우리, 문화원으로 마실가요”

야트막한 계단을 오르면 진도문화원이다. 문화원 입구에서 내려다보면 동네 풍경이 한눈에 보이는데 이만하면 동네 명소 소리 들을 만하다. 75년에 생긴 건물이라고는 하지만 당시에는 제법 세련된 건물이라고 한 소리 들었을 법한 건물이다. 더운 날씨에 계단을 오르는 진도의 어른들은 연신 땀을 흘리느라 바쁘다. 현관에서 화분을 정리하다가 진도문화원의 박병하 국장이 한 마디 한다.

“아, 날씨 거 한번 따뜻하죠?”

그의 말에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어르신들은 모두 까르르 웃음보를 터뜨린다. 겨울 한참 추울 때 생각하면 여름 더위도 감사하다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느새 이마의 땀도 식는다. 문화원 사무실에 앉아 커피 한잔씩 마신 어르신들은 이내 2층으로 올라간다. 1시에 있을 강좌 때문이다. 이 더위에도 가락 한번 맞춰볼 요량으로 먼 길을 걸었다니 그 열정이 대단하다.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양이 어느 행정기관처럼 딱딱한 공간이 아니라 이웃집처럼 정겹다. 진도에서는 오늘 열리는 진도실버예술단의 모임 뿐 아니라, 공예반, 유적지 순례반 등의 강좌를 개설해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강좌의 재미도 그렇겠지만, 인정이 있고 웃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도 모른다. 더욱이 요즘에는 진도군에서 위탁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과정을 준비하느라 문화원 식구들은 일주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쁘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일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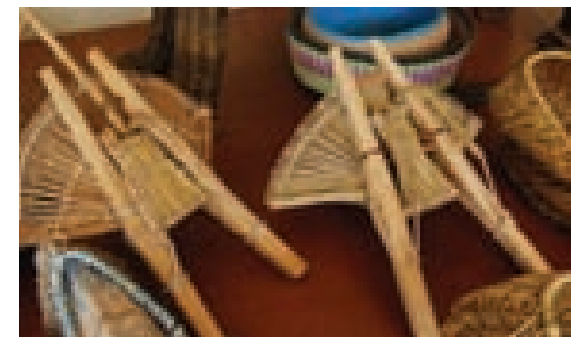
진도문화원의 김정호 원장



문화원 식구. 단출하지만 일할 때는 빠르고 누구보다도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가득 채운 회원들



회원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들

함께 즐기고 어우러지는 곳

“처음 진도로 들어왔을 때 많은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지요. 진도는 60세 이상이 30%가 넘는 곳이야. 그런데다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어. 그래서 생각했지. 사람이 삶을 포기하는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야. 내가 진도에 그 재미를 심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지.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자, 놀게 하자, 그런 생각이었어.”

정년을 맞아 진도의 문화원으로 돌아온 김정호 원장은, 그 때부터 흥이 있는 고장을 만드는 꿈을 품게 되었다고 한다.

“진도는 워낙에 예술인들이 많은 곳이에요. 인간문화재가 진도에만 스무 명이 넘어. 워낙에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같이 어우러지면 좋겠어요. 예술이 뭐 별건가. 함께 즐기고 어우러지는 거지.”

워낙 예술인이 많이 살고 또 그런 예술적인 성향이 강한 고장이라 이런 생각도 기꺼이 나왔을 터. 김정호 원장은 고향에 돌아와 사람들을 먼저 보고, 그 속의 이야기를 눈여겨보았다고 한다.

문화원이 앞장서는 살맛나고 신명나는 진도

이렇게 즐거움과 흥이 가득한 진도문화원에서 특히 더 자주 들려오는 것은 여러 '소리' 이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 바로 이 고장에서 유명한 상여소리다. 이 소리의 시작은 진도문화원 내의 문화학교의 회원들의 노력이었다.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사업을 받아 시행하면서 진도만의 독특한



진도문화원 앞을 지키고 있는 비석



진도실버민속예술단이 연습을 하는 건물



정성스레 꾸며놓은 상여



회원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들



짚풀공예를 배우고 있는 아이들

소리를 발굴했던 것. 이곳에서 배운 민속예술을 진도읍 장터 등지에서 공연하며 사람들에게 차차 알리게 되었고 그것이 진도의 대표적인 소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진도실버예술단'은 장례식에 초청되면, 애소리, 하적소리, 보살소리 등으로 망자를 위로하는 공연을 펼친다. 우리 조상들이 그러했듯 그 울음을 웃음으로, 애환을 삶의 기쁨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어느 사람에게나 죽음은 비켜날 수 없는 일이라지만 어떻게 보면 죽음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선뜻 소리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진도의 진면목을 본다. 죽음을 소리로 승화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장 슬픈 소리인 망가를 삶의 찬가로 바꿔 부르는 것을. 죽음마저 삼켜 삶을 녹여내는 그들의 혼을. 이 모든 것이 문화원, 더 나아가 진도를 움직이는 힘이 될 것이다. 그것을 지켜내는 데 더욱 바빠 달려야 할 진도문화원이다. ☼

건국 60주년 맞이 'I Love Korea 청소년 대장정' 역사·문화대장정



광화문에서 건국기념일 행사에 참여 중이다



경복궁 근정전에 대한 설명을 드는 광주남구문화원 역사·문화대장정 참가 학생

지난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I Love Korea 청소년 대장정' 행사에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지방 문화원이 역사·문화대장정 코스로 참여했다.

청소년들의 협동정신과 극기심을 키우고 공동체 체험을 통해 우리 국토와 역사를 아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단순한 문화답사를 지양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병행하였다. 이 행사에는 총 1,000명의 인원이 참여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후원을 받아 시행되었다. 서울의 송파문화원을 비롯하여 부산시지회, 강화문화원, 광주남구문화원, 대전시지회, 대덕문화원, 울산중구문화원, 경기도지회, 포천문화원, 속초문화원, 원주문화원, 충북도지회, 충남도지회, 전북 지역의 부안·남원·전주문화원, 정읍문화원, 전남도지회, 경남도지회가 참여했다. 각 문화원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14일 저녁 집결하여 15일 건국기념일 행사에 참여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청소년 국토대장정 참가자 1,000명과 일반 국민이 함께 하는 퍼레이드를 통해 국민에게 통합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이날의 대통령 경축사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틀에서 벗어나 '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을 주제로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고 여기에 대통령께서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이목을 끌었다. ☺

코스안내

- 남도답사 1번지를 따라 역사탐방과 국토대장정
- 서울>목포>영암>해남>강진>순천>서울
- 민족의 소리와 국악을 체험하는 문화탐방
- 서울>남원>구례>하동>서울
-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 부산>문경>충주>서울>부산
- 강화문화원과 함께하는 역사문화대장정
- 강화>서울>속초>강릉>서울>강화
- 건곤감리乾坤坎離 청소년 역사문화대장정
- 광주>장성>전주>부여>천안>수원>서울>광주
- 신석기시대에서 우주시대로의 과학·역사문화탐험
- 대전>공주>부여>천안>수원>서울>대전
- 경기도지회와 함께하는 역사·문화대장정
- 경기>안동>문경>이천>서울>경기
- 600년 찬란한 백제문화 탐방 코스
- 논산>부여>공주>예산>서산>서울>논산
- 침묵의 역사를 지켜온 우리 산성·읍성 기행
- 남원>부안>전주>공주>서산>강화>서울>전주
- 전남의 유배문화를 따라서
- 강진>해남>완도>진도
- 역사를 따라 흐르는 우리의 얼을 찾아서
- 함안>달성>거제>창녕>대전>서울>함안

쌍계사 금당

깨달음에 이른 석가모니 부처는 모든살이를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소크라테스나 예수와 마찬가지로 부처도 말씀만으로 자신이 깨달은 경지를 제자들에게 전했다. 부처가 열반하자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을 모았는데 이것을 결집(結集) 즉 sangaha라고 한다.

이 결집은 역사상 세 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결집은 부처가 열반한 그 해에 이뤄졌고, 두 번째 결집은 그로부터 100년 후에 이루어졌다. 세 번째 결집이 성사된 것은 석가 사후 236년 뒤의 일이다.

부처가 열반하자 500명의 제자들은 왕사성(라야자그라성) 옆에 있는 칠엽굴에 모여 각자가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스승의 말씀을 되새겨 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을 전하면서 첫 머리에 ‘에밤마야스루담(evam maya srutam)’이라는 말로부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왔다.’는 뜻의 이 산스크리트 어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如是我聞’로 번역돼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첫 결집의 소산으로 짐작되는 경전이 잡아함경(雜阿含經)이다.

중국의 천태지의는 부처가 제자들을 가르친 45년 동안을 다섯 시기로 분류한다. 부처가 보리수 아래에서 대각(大覺)을 이룬 후 깨달은 그대로의 경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화엄경이고 이 기간이 21일이다. 이 시기를 화엄시(華嚴時)라 한다.

부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상층계급이어서 유식한 사람들이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을 이해하고 잘 따랐지만 우둔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면이 많았다. 부처는 좀 더 알아듣기 쉬운 내용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이것이 중아함경, 중일 아함경, 장아함경, 잡아함경이다. 이 시기가 12년으로 녹야시(鹿野時)라고 한다.

녹야원에서 우둔한 세상 사람들을 가르친 부처는 좀 더 정도를 높여 8년여 동안 유마경, 승만경과 같은 대승경전을 설하기 시작하였다. 이가 방등시(方等時)다. 이어서 부처는 22년 동안 반야경을 설하는데 이를 반야시(般若時)라 한다.

마지막으로 부처는 8년에 걸쳐 법화경을 설하고 입적하기 직전에 이르러 하루 밤 하루 낮 동안 열반경을 설하는데 ‘법신은 상주하며 모든 중생은 성불한다.’는 이상을 마지막으로 가르친 뒤 열반한다. 이 시기를 열반시(涅槃時)라 한다.

석가모니 부처의 설법 기간이 45년간인 것을 감안하면 천태지의의 시간적 분류는 다소 중복되는 것이 없지 않다.

금강경은 세 번째 결집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분류하는 것은 첫 번째 결집에서 쓰인 잡아함경에 나타난 석가모니 부처의 사상에 근거해 그 핵심을 재조명하고 재해석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처럼 서두를 길게 풀어헤친 것은 그만한 연유가 있기 때문이다.

칠월 중순-,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훈래 경남지회장의 주선으로 진주 이병찬, 하동 정연가 등 넷이 쌍계사를 찾는다. 문화원장들의 망중한이다.

쌍계사를 찾을 때마다 필자는 마음이 온유해 진다.

우선 고운 최치원의 글씨에서부터 이런 마음은 일어난다. 고운은 산문초입 큰 바위에 글씨를 썼는데 왼편에 쌍계(雙溪), 오른편에 석문(石門)이라 새겼다. 이 글씨 너자는 고운의 심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글씨에 수식이 없다. 굵고 가는 변화가 없다. 커다란 붓을 들고 한 번에 써 갈긴 일필휘지다. 세상을 바라보는 고운의 의지와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산길을 따라 오르면, 일주문이 나타난다. ‘삼신산쌍계사(三神山雙溪寺)’라 쓴 편액이 객을 맞는다. 삼신산이란 말이 눈에 익다. 봉래(蓬萊)·방장(方丈)·영주(瀛洲)의 세 산이 삼신산이다. 금강산의 다른 이름이 봉래산이고, 제주를 영주라고 한다. 방장산이 곧 지리산이니 ‘지리산쌍계사’란 의미다.

쌍계사 마당에는 고운이 쓴 진감국사의 사리탑비가 서 있다. 국보 제 47호인 진감국사대공탑비는 천년이 넘는 세월에도 변함없이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글씨도 훼손되거나 비바람에 망가지지 않았다. 1936년 이 곳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수가 땅에 떨어졌는데 이 때 탑신이 갈라지고 깨졌다. 훗날 쇠로 테를 메우고 바로 세워 지금에 이르렀다. 6.25전쟁 당시 인민군이 쏜 총탄 흔적이 여러 군데 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석은 강건한 옛 자태가 의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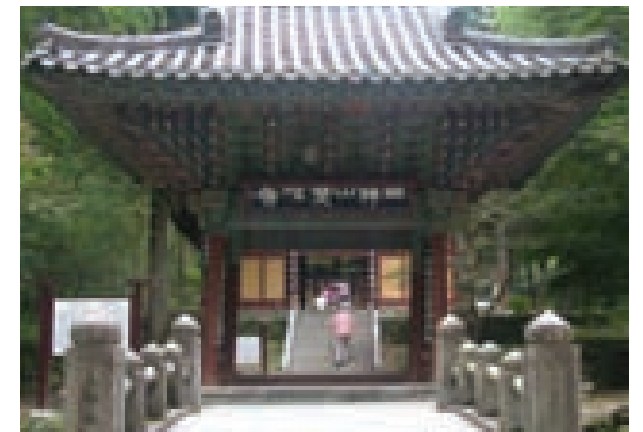
혜소 진감국사(慧昭 眞鑑國師)(774~850)는 신라 후기 선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선승이다. 불교음악인 범패를 처음 도입해 제자를 양성하였다. 중국으로부터 차나무를 들여와 차 문화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쌍계사를 선·음·차의 종찰로 만든 사람이 혜소다.

혜소는 법명이고, 진감은 시호이다. 혜소는 길거리에서 3년 동안 짚신을 삼아 오가는 사람에게 보시하며 실천적 선 수행을 통해 독자적 선사상을 형성한 큰 스님이다.

일행은 종루를 마주하고 서서 종에 새겨진 시구를 읽어 본다.

지리산록대가람 智異山麓大伽藍
천변풍외진종성 天邊風外振鐘聲
성색불이차법음 聲色不二此法音
견문즉시득해탈 見聞卽時得解脫

지리산 자락의 큰 가람 쌍계사
하늘 끝 바람 밖에 종소리 가네
종과 소리 둘이 아니란 이 진리의 소리
보고들은 즉시 자아에서 벗어나리



일행은 다시 금당을 향해 계단을 오른다. 그러나 산승들이 하안거에 들어간 금당은 정적에 갇혀 있고 대문은 굳게 잠겨 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방장실에 들어서니 방장스님은 마루에서 시자스님과 더불어 글씨를 쓰고 있다. 보니 ‘마하반야바라밀’이란 글이다. 웬 손님들이냐고 묻는다. 예고 없이 들이닥친 것이 실례인줄 알면서도 우리는 주춤거리고 섰다. 간단히 물러설 인사들이 아님을 알아차렸던지 하던 일을 멈추고 시자스님 더러 종지와 벼루를 치우라고 이르고는 우리일행을 맞는다. 탁자를 가운데 두고 마주앉자 하동, 사천, 함안, 진주 문화원장들이라고 앉은 순서대로 소개하자 그제야 방장스님은 긴장을 푼다.

보아하니 방장스님 뒤편으로 금강경을 쓴 병풍이 눈에 들어온다. 필자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요량으로 ‘요즘 금강경을 외우려 노력중이나 잘 외워지지 않는다.’고 말을 꺼낸다. 방장스님은 ‘금강경을 구태여 외울

필요까지야 없다'면서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제상비상 즉견여래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라는 금강경의 사수계를 실천하라고 일러 준다.

석가모니 부처는 제자 수보리에게 '수보리아, 내 몸을 본 것으로 여래를 보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님의 몸으로서는 여래를 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여래는 몸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신상이 아닙니다.' 이에 스승은 제자에게 '무릇 세상만물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니. 만약 세상만물이 만물 그 자체가 아닌 것으로 보이면 곧 여래를 볼 수 있다.'고 대답한다. 이것이 부처가 금강경에서 제자 수보리에게 지니고 깨닫도록 가르친 사구계(四句偈)다.

금강경에는 이와 비슷한 사구계가 두 번 더 등장한다.

석가모니 부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서른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스승은 제자 수보리에게 묻는다. '수보리아! 32가지의 잘 생긴 특징으로 여래라 볼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의 32가지 특징으로 여래를 보겠습니다.' '그래. 32가지 특징을 가졌다고 여래라 할 수 있다면, 전문성왕도 여래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래를 보는 제자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 주기 위해 스승은 계를 설한다. '몸으로 나를 보거나 소리로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니 여래를 볼 수 없다. (약이색견아 이음성구아 시인행사도 불능견여래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

금강경은 마지막 장에서 석가모니 부처의 참 사상을 보여준다.

'만약 어떤 이가 우주에 가득한 일곱 가지 보석을 가지고 베풀다고 하더라도, 참을 찾아 깨달은 사람이 금강경이나 사구계를 마음에 새기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가 있다면, 이 이가 더한 복을 받는다.'고 금강경은 가르친다. 그리고 사구계를 다음과 같이 확실히 제시한다.

'삼라만상은 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꿈이오, 환상이오, 거품이오, 그림자와 같고/ 이슬 같고 또한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사물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간절한 충고다.

여기서 필자는 '금당을 보러 왔다.'고 우리의 방문 목적을 이야기한다. 방장스님은 지금 스님들이 하안거 중이라 금당문을 닫아 놓았다면서 시자스님을 부르더니 손님들을 조용히 안내하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돌아 나오면서 보아하니 방장스님은 낮익은 얼굴이다. 불교 TV가 방영하는 새벽예불에서 보았던 고산스님이다. 새벽예불은 쌍계사분을 방영 중이고 고산스님은 예불 장면 중간 중간에 여러 번 나타나고 있었던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더니 부채 하나씩을 선물로 들려준다. 부채마다 고산이 글씨를 썼는데 일인장락(一忍長樂), 산산수수열무생(山山水水說無生), 인자무적(仁者無敵), 수산복해(壽山福海)라는 고사성어들이다. 고산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불교계 중진이다.

우리 일행은 시자스님을 따라 금당문을 들어섰다.

금당(金堂)이란 편액이 가운데 있고 오른쪽에 세계일화조종육엽(世界一花祖宗六葉), 왼쪽에 육조정상탑

(六祖頂相塔)이란 액자가 걸려 있다. '세계만방에 부처님 꽃 하나로 우뚝 피었으니 동방에 솟은 조종은 달마, 혜가, 승찬, 도신, 홍인, 혜능 여섯이네', '그 마지막 여섯 번째 조종 혜능의 초상화를 모신 탑'이라는 뜻으로 풀이해 본다. 탑을 마주한 방 벽에 6조 혜능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초상화가 무척 인상적이다. TV아침예불 화면에도 이 초상화가 잠시 등장한다. 정상이란 선사의 초상화를 의미한다. 진감국사가 중국으로부터 돌아 오면서 가져다 건 초상화인 것으로 보인다.

삼배를 올린 뒤 탑을 오른쪽으로 돌면서 탑신 뒤편에 난 구멍으로 손을 집어넣었더니 무엇인가 손끝에 와 닿는다. 시자스님은 보자기에 쓴 금강경이라면서 이를 만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 소원이 이뤄진다고 귀뜸한다.

물질만능시대에 금당은 청정한 그 무엇을 일깨우게 한다.

5조 홍인대사가 금강경은 강설할 때 혜능이 한 번 듣고 문득 깨달으니 돈법(頓法)과 더불어 가사(袈裟)와 의발(衣鉢)을 넘겨주면서 "너를 6대조로 삼는다."고 하였으니 법은 전해진 것이다.

'해와 달이 항상 밝으나 다만 구름이 덮여서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두워 일월성신을 뚜렷하게 보지 못하다가 문득 지혜의 바람이 불어와 구름과 안개를 말끔히 거두어 버리면, 온갖 것이 일시에 모두 나타난다. 세상 사람들의 성품도 마치 깨끗한 하늘과 같은 것으로서 달과 해처럼 항상 밝은데, 밖으로 경계에 집착한 나머지 망령의 뜬 구름이 덮여서 어둡다.'는 것이 제자 혜능이 스승 홍인에게서 전해 받은 선 수행법이다.

성품에서 어둠을 걷어내는 수행법이 좌선이고, 어둠을 걷어낸 상태가 돈오(頓悟)다. '일체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모든 경계 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앓음 쓰이며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않은 것이 선(禪)' 이라고 혜능은 제자들에게 좌선(坐禪)의 수행법을 일러준다.

선종의 기본 중지는 직지인심·견성성불이다. 혜능의 견성성불은 인간의 본성을 대상화하여 보지 않고 중생이 본래부터 깨달음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며, 이것을 알고 난 다음 불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자체를 아는 것이다. 따라서 견성성불은 자성이 곧 부처임을 깨우치는 돈오를 말한다.

성철이 선문정로를 열면서 '뜰 앞에 악한 나무를 베어내지 않을 수 없다.'고 외친 것은 돈오점수를 이설이라고 단정하면서 나온 말이다. 점수는 보조국사 지눌의 사상이고, 뜰 앞의 악한 나무는 지눌을 지칭한 것이다.

마지막 조종인 혜능의 정상 탑 앞에 서서 깨달음이란 명제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문화원장들의 여름 나들이는 그런대로 의미가 없지 않다. ☺



박동선 사천문화원장

고흥의 나로도를 거쳐 거문도와 백도를 섭렵(涉獵)하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섬나라 남도 해상을 장보고가 되어 살펴보다

7월의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1박 2일의 일정으로 남도해역을 둘러보는 문화원 역사탐방에 40명을 인솔하고 다녀왔다. 여행 일정이 다가오는 시간을 며칠 앞두고 '날씨가 고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방정맞은 생각도 바다 여행이고 보니 자연스럽게 앞섰다.

6시 30분에 문화원을 출발한 버스는 고속도로와 지방도로를 거쳐 고흥지역을 관통해 나로도 항(港) 서울식당에 도착한 것은 오후 1시가 조금 지나서다.

햇볕은 유난히 짙게 내려 쏘고, 지열(地熱)은 숨을 막아 저절로 '아~휴'의 소리를 내게 했지만 점심식은 즐거웠다. 서울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해초류에서부터 해산물로 식단을 정성껏 차렸다고 식당 주인은 자랑하며 찬거리를 일일이 설명해 준다. 그러나 섬사람의 투박한 말씨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상관하지 아니하고 별미음식을 추가 주문했다. 그래도 주인은 '예~' 하며 연신 날라준다. 친절하고 고마웠다.

점심을 먹고 배를 타야할 시간이 좀 남아 인근에 있는 해송이 즐비하다는 해수욕장으로 이동했다. 차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나로도 해수욕장은 수백 년의 수령을 가진 아름드리 소나무가 해변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분재를 해 놓은 듯 꾸부러져 미각을 더해 주는 해송들이 해안에 그늘을 마련하고 피서객을 부른다. 아직은 해수욕객들이 없었지만 얼마 후면 피서를 즐기려는 인파들로 해송 그들은 몸살을 앓겠다.

섬과 섬을 잇는 수많은 다리와 방조제를 타고 남쪽으로부터 성큼성큼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을 맞는 고흥반도 섬들의 여행은 이렇게 흥분으로 시작되었다.

20여 개의 해수욕장과 낚시터가 해안선을 따라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고흥반도의 비경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중 나로도지구가 으뜸으로 꼽힌다. 소록도와 거금도에서 감상하는 남해의 풍광도 빼어나다.

요즘 고흥을 알리고자 하는 안내책자에는 로켓 그림과 '우주'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바로 외나로도인 봉래면 예내리 하반마을에 건설되고 있는 우주센터 때문이다.

배 시간이 임박하여 다시 나로도 항에 도착해 여객선에 승선했다. 바닷길은 잔잔했지만, 너울거리는 파도는 햇살을 연신 반사시켜 눈을 부시게 한다. 여객선 풍무니에선 힘찬 뱃고동 소리에 놀라 연거푸 흰 물거품을 일구어 내며 약 2시간을 조금 넘게 달려 작은 섬들로 구성된 금오열도를 따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거문도에 도착한다.

우리나라 개항 일변지인 거문도는 여수시 삼산면(三山面)에 속한다. 삼산면이라는 지명은 고도(古島), 서도(西島), 동도(東島)등 세 개 섬이 마치 바다에 떠있는 산과 같다하여 '삼산'이라 했단다. 또 손죽도, 초도, 거문도를 합하여 삼산면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최고봉인 동도의 망향산(247m)을 비롯하여, 서도의 음달산(237m)·수월산(128m)은 비교적 급경사의 기복이 심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해안은 외탄갑·다랭이끝·취끝·대매지끝 등 작은 돌출부가 많고 드나들이 심하다.

기후는 대체로 온난하며 비가 많다. 농작물로 고구마·감자·마늘·보리·콩·유채·참깨·양파 등이 생산되지만, 자급하기에는 부족하다. 연안 일대에서는 삼치·멸치·장어·도미·갈치 등이 주로 잡히며, 자연산 굴·미역·조개류 등의 채취와 함께 최근에는 미역양식업에 치중하고 있단다.

취락은 동도 서쪽 해안가인 유촌·죽촌마을, 서도의 북쪽 서도리·남쪽 덕촌리, 고도 서쪽 해안가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3섬으로 둘러싸인 도내해(島內海)는 파도가 잔잔하지만 수심이 깊다. 거문항이 있는 고도 일대의 수역은 근해·원양 어업의 전진 기지이고, 서도는 연안항로의 기항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수-거문도 간을 운행하는 정기여객선이 하루에 5번 왕래하고 있었으나 근자에는 고유가로 운행을 단축한다. 서도에는 동백나무가 섬을 뒤덮고 있고, 섬 일대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민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전해 오고 있는<거문도 뱃노래>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거문도라 부르기 전에는 삼도·삼산도·거마도라 불렀다.

또 이곳은 1885년(고종 22)은 영국의 동양함대가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거문도 사건으로 유명하다. 이때에 해밀턴 항구라고 불렀다. 거문도라는 이름은 중국 정여창(丁汝昌)이 섬 내에 학문에 능한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문장가들이 많다는 뜻인 '거문(巨文)'이라고 했던 것이 오늘날 거문도가 되었다.

서도의 남단과 북단에 등대가 있고, 남단의 거문도 등대는 1904년에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로 촉광(燭光)이 약 40km에 이른다. 면적 12km², 해안선 길이 4.3km인 이 섬은 2003년 현재 인구 796명에 이른다. 이곳은 360여 년 전 추씨(秋氏)가 처음 거주했다고 전해지며, 매년 음력 설달 그믐날에는 추씨 할머니를 수호신으로 모시는 제사를 올린다.

등대로 향하는 길은 다도해 해안을 끼고 등산로가 형성되어 있어 바다의 절경을 보여주고 있다. 등산로에는 무수한 동백나무가 터널을 형성하고 있어 햇볕을 가려 주는 등 매우 시원하고 아름다운 길이다. 등대 주변의 잘 가꾸어진 잔디밭을 지나 원통형으로 높게 세워진 전망대 계단을 숨을 몰아가며 올라섰다. 마치 비에 흠뻑 젖어 주체하지 못하듯, 마구 흘러내리는 땀을 손 등으로 씻어내며 전망대까지 올라 망망대해(茫茫大海)를 시원스럽게 조망해 본다. 저 먼 곳의 점 같은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을 짊어준 화물선이구나.

가족미술치료 - 행복이 가득한 우리집

다시 내려오는 길에 약수인 듯 솟는 짙찌르한 물을 맛보듯 마시며 숙소로 향하는 길에서 관리인을 만났다. 관리인은 이곳 콘도를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평상시에는 무료로 숙박을 제공한다고 일러준다. 신선한 배려다. 귀가하면 자식들에게 일러주리라.

역시 식후경이라 했던가! 저녁을 마치고 바닷가를 산책했다. 바다의 비린 냄새를 향기 삼아 벗들과 거니는데, 더위를 씻어주는 바다의 밤공기가 반갑다. 이곳저곳의 횃집을 기웃거리다가 갈치회 한 접시 주문하고 소주로 피로를 푼다.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백도로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해서...

아침잠을 설치며 부산하게 기상해 백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문화재청은 지난 1987년부터 환경보호와 생태보존을 위해 일반인들의 백도 입도(入島)를 금지시켜 뱃전에서 감상해야만 했다.

백도는 기암괴석의 절경과 수십 종의 희귀조, 300여 종의 아열대 식물, 석란 자생지로 유명하다. 섬이 100(百)개 중 하나가 부족해 백도(白島)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진 섬이다.

백도(白島)는 거문도에서 동쪽으로 28km쯤 떨어진 무인도로, 39개 섬들이 모여 있다. 매바위, 서방바위, 각시바위, 형제바위, 석불바위, 지네바위, 성모마리아바위 등 갖가지 형상의 바위는 헤아리기 어렵다. 천연기념물 흑비둘기를 비롯한 가마우지, 동박새, 휘파람새 등 30여종의 새들과 풍란, 눈향나무, 동백, 후박나무 등 350여종의 아열대 식물들도 즐비하다. 돈나무, 생달나무 등 상록활엽수도 파랗게 섬을 뒤덮고 있었다.

다시 일정에 따라 녹동항에서 다도해 해상공원을 관광하기 위해 여객선에 올랐다. 선장의 딱딱 악쓰는 해설 소리에 짜증났지만, 잔잔한 뱃길과 괴암괴석이 연출하는 장관에 넋을 잃어 인내할 수 있었다.

한편 녹동항에서 1km 정도 떨어진 소록도에는 한센병원과 갯생원이 있으며, 소록도 해수욕장·소록도 공원 등이 있다. 그러나 일정이 너무 촉박해 둘러보지 못했다. 아쉬움은 그 어느 날로 기약하고 귀경길에 올랐다.

여행은 피곤한 것, 그러나 많은 양식(식견)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임을 새삼 느끼며 역사탐방의 소중함을 새겨둔다. ☁



박종우 금천문화원 상임부원장/금천구 향토사연구소 소장



가족미술치료사진

대구 북구문화원(원장 남성희)은 지난 7월 12일 오후 2시부터 3시간에 걸쳐 대구보건대학 본관 605호 강의실에서 북구문화원 가족치료워크숍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2인기준) 20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동적화 그리기, 따라 그리기, 그림으로 이해하기, 찰흙작업 등의 목연작업과 느낌나누기, 질의 응답을 내용으로 하는 미술치료행사를 가졌다.

가족과 함께하는 미술매체 작업을 통해 가족의 역동, 행동 양상, 대화 패턴 등을 점검해 봄으로써 역기능적인 패턴을 진단해 보고, 보다 지지적이며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이다.

또한 가족 미술치료는 정신질환, 신경증, 비행과 같은 문제 행동을 지닌 증상이나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의 교류패턴에 대해 직접, 간접으로 개입하여 가족체계의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미술과정이 가족 문제의 진단을 돕고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며 리허설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미술작업이 무의식적인 의사소통과 의식적인 의사소통을 표출해 내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가족 역동의 지속적인 증가가 될 수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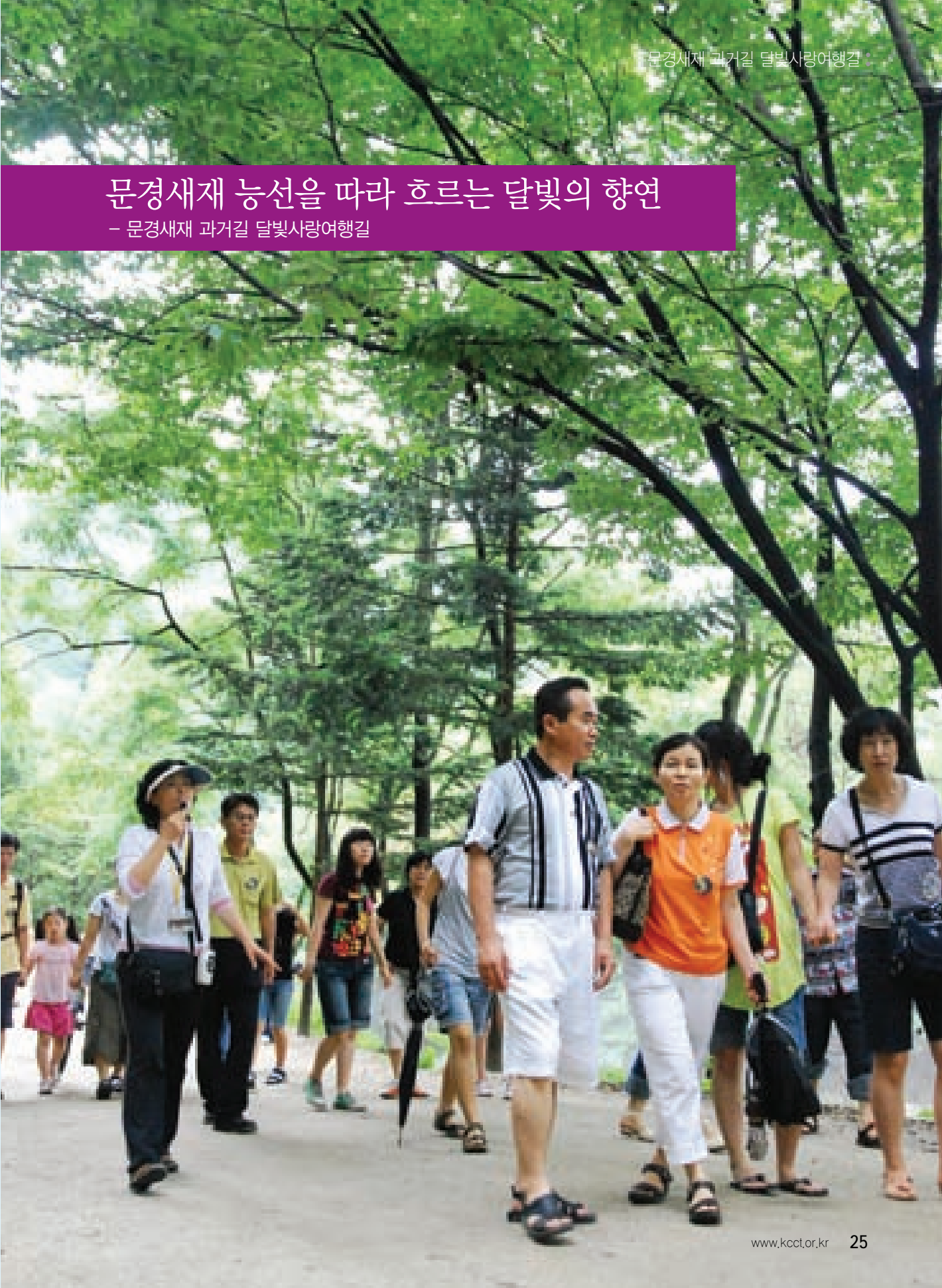
그리고 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인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건강성을 유지하는 준칙으로서 정정하는 가운데 의사소통을 해 나가며, 서로를 지지하고 확신하면서 타인을 존중하는 것을 서로에게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 유머감각을 가지고 놀이를 하며 공유된 책임감



가족미술치료사진

을 보이고, 옹고 그림을 서로에게 가르친다. 전통과 공유된 의식이 중요하다는 강한 가족감을 가지며 서로간의 상호작용에서 균형감을 가진다. 종교적 또는 영적 핵을 공유하며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타인을 위한 서비스를 높이 평가하며 함께 나누고 대화하기 위해 함께 식사시간을 가진다. 여가활동을 공유하며 서로로부터 그리고 가족 외의 자원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어려움을 인식하며 인정한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으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가족의 마음을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미처 몰랐던 부분들을 조금씩 알게 되고, 이미 알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부분들이 생겨났고 또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만으로도 가족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가족에게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는 우리의 가족 형태에서 이해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문경새재 능선을 따라 흐르는 달빛의 향연
-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여행길



좁은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습이 조심스럽다.

새도 쉬어간다는 문경새재를 오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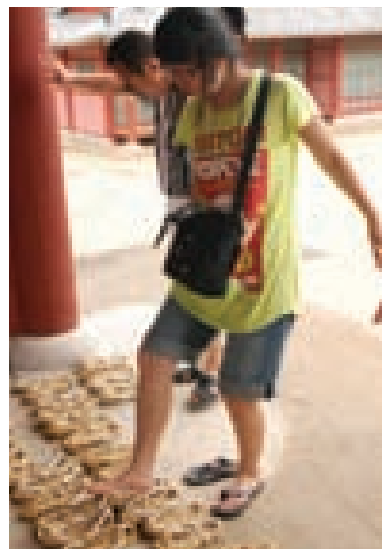
제법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오후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조별로 모여 일정을 시작한다. 문경새재의 입구에서 마침 구성지게 들려오는 문경 아리랑 가락. 모두들 상기된 표정으로 경청한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나는 날씨지만 문경새재 숲길로 들어서니 제법 시원하다. 물가를 걸을 때는 서늘한 기분마저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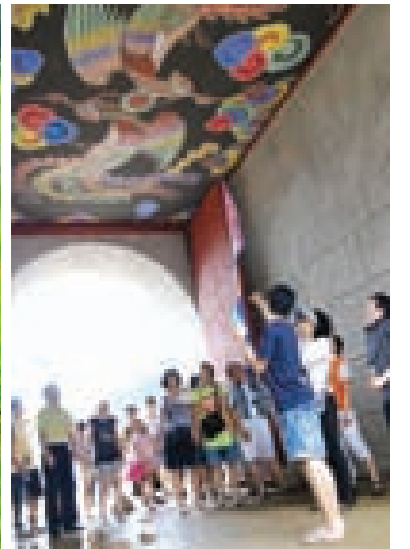
1관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과거시험문제를 푸는 모습. 다들 열심이다.



집신을 신어보는 학생.



복장을 갖추고 나니 장원급제라도 한 듯한 소원을 쓴 종이를 묶으며 소원을 빌어본다. 대왕세종 세트장 둘러보기 표정이다.

준비된 밥을 손으로 조물조물 뭉쳐 주먹밥을 만드니 과거를 보기 위해 험한 고개를 넘어야 했던 선비가 된 것 같다는 어느 초등학생의 말에 모두 웃는다. 주먹밥을 하나씩 입에 넣고 걸으니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이다. 멀리서부터 눈에 띄는 사슴, 타조. 사람에게 익숙한 모양인지 한 무리가 우르르 달려가도 달아나지 않아 아이들은 까치발을 들어 올리며 열심히 구경이다. 징검다리도 건너고 이름 모를 꽃을 사진기에 담으며 모두 설레는 얼굴이다.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여행은 문경시청과 문경문화원(원장 채대진)에서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문경을 대표하는 문경새재와 달빛, 자연을 한 번에 만끽할 수 있어 걷기 힘든 겨울만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맨발로 걷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여서 가족 연인들의 호응이 높다고 한다.



공연 관람.



밤이 깊었는데도 차를 만들어주느라 바쁘다.



2008년, 과거시험 보기

1관문을 앞두고 소원을 적을 때는 사뭇 진지한 표정들이다. 사소하지만 다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써서 나무에 묶고 관문을 향해 걷는다. 길을 걸어 오르다보니 드라마 '대왕 세종' 세트장. 광화문을 지나 근정전에서 모두 멈춰 과거시험을 치른다. 갈고 닦은 실력을 혹여 발휘하지 못할까 전전긍긍 마음 졸였던 그때 그 선비들이 그랬을까. 올라오는 길목 내내 설명 들었던 문화해설사의 이야기를 곱씹어 가며 열심히 답안을 적어낸다. 준비된 짬신도 신어보고 옷차림도 갖추어 예를 갖추어 시험에 임한다. 비록 세트이지만 광화문, 교태전, 사정전 등을 둘러보며 경복궁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도 듣는다.

경복궁에서 빠져나와 두 손 잡고 황톳길을 걷는다. 때로 신을 벗고 맨발로 부드러운 흙을 밟기도 하고, 졸졸졸 흐르는 물에 장난도 치며 자연을 만끽한다. 그러다 만난 원터의 사람들! 설레는 마음으로 발길을 재촉해본다. 오미자를 첨가한 구수한 막걸리에, 도토리묵, 어린이들을 위한 뽕튀기도 있다. 서로 먹여주랴 받아먹으랴 바쁘다.



장원급제한 학생과 어머니, 문경문화원 채대진 원장



저녁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연과 어우러진 사람, 사람들

과거길을 위해 넘어야 했던 고개, 문경새재. 새도 쉬어 갈 정도로 높았다던 그 고개에서 옛 선비들이 바라봤던 하늘은 무슨 색이었을까. 오늘 하늘은 더없이 푸르다.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나뭇잎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터.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 머리 위로 손등 위로 불어 땀을 식혀준다. 2관문을 돌아 내려오는 길에 만난 주막! 해도 거의 넘어가고 지친 다리도 쉴 곳이 필요하다. 예전 선비들 마음이 그랬을까. 주막에서 직접 만들어주는 말차도 받아먹고 아트풍선도 받고 편지쓰기도 한다. 사위가 어둑해 지니 주변을 메우는 다듬이질 소리에 다들 귀를 기울인다. 문경문화원의 회원들로 구성된 공연단이 다다다닥 소리를 내며 주위를 채운다. 물레 돌리기가 궁금한 한 꼬마는 그 앞자리에서 떠날 줄 모른다. 때로 통기타 소리가, 신나는 댄스 음악에 모두들 늦은 밤을 만끽한다. 한 장애우가 섹시댄스를 출 때에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를 보내기도 한다. 그리고 드디어 장원급제를 가리는 자리. 모두들 기대에 찬 얼굴로 호명을 기다린다. 드디어 발표. 여기저기서 실망의 목소리와 축하의 목소리가 섞인다. 장원급제한 사람에게 관복을 입히고 어사화까지 씌워주니 기분만은 최고인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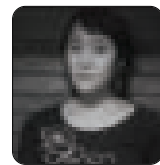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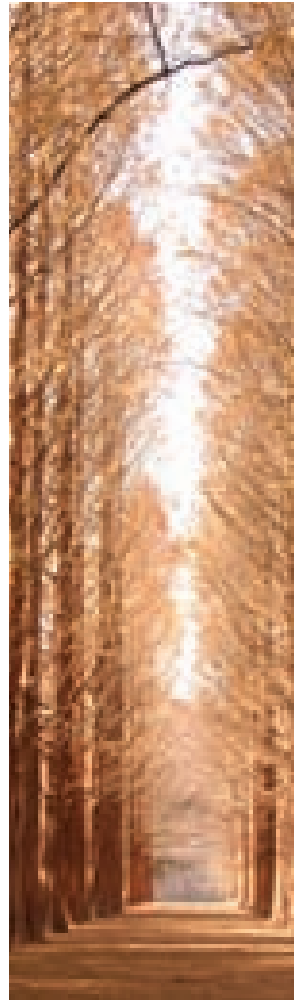
슬슬 문경새재의 길은 어둠 속에 묻힌다. 달빛의 도움으로 길을 더듬어 어둠을 짚어 내려간다. 고요하고 적막한 밤, 달빛만이 가득한 밤.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마음을 붙잡게 되는 하루다.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여행 문의) 문경문화원 054) 555-2571 ☎

천년의 고백

긴 먼발을 후루룩 말아서
 하루를 뱃속에 집어삼키면
 무명의 밤이 뚜벅뚜벅 걸어온다
 눈감은 사막에 모래폭풍 키워내는
 어둠의 빙하에 달별을 뜨게하는
 내 이름은 칼렌데리*
 손바닥 운명선을 따라 걸으면
 어느 계절엔가 그대에게 닿을까
 외로움 모르기에 나는 떠난다
 오늘도 축제같은 하루 든든히 채워
 부수고 밀어내도
 매일 밤 되살아나는 벼랑 끝에
 꿈처럼 아름다운 침낭을 편다
 나를 발가벗기던 발모가지가 아프다
 내일은 무릎을 세우리
 뱀처럼 새로 나고픈 등어리도 아프다
 날개라도 돋으려는 것이냐
 그렇담 내일은 날아서 가리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전해야할 비밀이 내게 있기에
 나는 너에게 닿아야만 한다

*방랑생활을 하는 수도승



박윤영 시인

산을 오르며

나는 아침마다 산을 오른다.

마침 사는 아파트 뒤에 별로 가파르지 않은 백련산이 있어, 나는 매일 아침 산을 오르고 있다. 그새 가을인가. 스치는 바람결이 서늘하다. 오는 계절은 산조차도 막을 수가 없는가 보다. 이 산을 이십년 가까이 오르면서 찾을 때마다 감회가 다르다. 요새는 산길을 오르며 지나가는 세월을 절로 느낀다. 가는 세월에 숙연해진다.

산은 거짓이 없다. 늘 한 자리를 꿈적하지 않고 지키고 있는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산은 한 모습을 지니고 있을 때가 없다. 흐르는 물 같이 지나가는 바람소리마냥 산은 늘 변한다. 벗은 나무 가지에 물이 오르고 어느새 파란 잎들이 다투어 모습을 드러내는가 했더니 만산홍엽이 눈앞을 가로 막는다. 저만큼 나앉은 산굽이가 어제의 그 길 같건만 그 또한 눈여겨보면 늘 변한다. 누군가 밟고 간 앞길이 조금씩 새 길을 틔우고 어제 없던 패랭이꽃 사이로 이름 모를 텃새가 지저귀고 있다.



사람들이 바쁘게 그 길을 오간다. 오가는 큰길은 정해져 있다. 늘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굽잇길을 너나 없이 이용한다. 허나 비록 야트막하기는 하나 정상에 오르는 길은 한 두 길이 아니다. 돌아가기도 하고 질러가기도 하고, 때로는 숨 가쁘게 눈앞을 막아선 능선을 기어오르기도 해야 한다.

나는 아침마다 산을 오르면서 이아침엔 그 숲한 길 중에서 어느 길을 찾아갈 것인가 항상 망설인다. 오늘은 산 아래 오솔길을 타고 새들이 우짖는 소나무 숲을 지나 웅달샘이 있는 팔각정 아랫길을 타고 오르리라.

허나 산은 우리의 삶과 닮았다. 정작 운동모를 쓰고 운동화 끈을 불끈 조이고 집을 나서면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셋길로 접어들 때가 많다. 눈앞의 외길을 탔으면 반시간이면 돌아올 길을 잘못 들어선 길 탓으로 반나절을 허비하고 돌아올 때도 있다.

그런가하면 간밤 열은 잠결이 운동부족인 것 같아 오늘은 좀 심하게 산을 타리라, 마음을 굳게 먹고 돌 자갈길을 타고 오른다. 허나 산마루에서 뜻하지 않은 지인을 만나 중간에서 어제 걷던 그 길을 함께 타고 내려 올 때도 있다. 꼭 안개 속을 걷듯이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길 같아, 아침산은 늘 가슴을 설레게 한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 산을 찾는다. 찾지 않으면 궁금하고 마음에 쏘이 쑤서 견딜 수가 없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산을 받쳐 들고 집을 나선다. 숨 몰아쉬며 걷다보면 지나온 나의 길이 문득 궁금해질 때가 많다. 뒤돌아본다. 돌아본들 이미 구비를 튼 그 길은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다. 눈앞에 칠 부 능선이 막아섰다. 게으른 몸은 나를 달랜다. 저 가파른 고갯길은 피해가자. 쉬운 길을 두고 왜 어렵게 가려 하느냐. 그래서 돌아 갈 때도 있다. 돌아가는 길이 오히려 험준하여 발밑의 자갈길에 미끄러져 낭패를 볼 때도 있다. 그게 인생 아니던가. 어떻게 계산된 삶대로 내 생을 살았더라 말인가.

그렇다. 산길은 꼭 내가 걸어온 인생길 같다. 돌고 돌아도 끝없이 이어지는 눈앞의 야산이 인생살이와 하도나 닮았다. 어찌 뿐이라. 가쁜 숨 몰아쉬며 애써 오른 길만큼 내 몸에 넘치는 땀방울도 그만큼 힘이 든다. 땀으로 젖은 몸을 돌아와 따뜻한 미온수로 씻어낼 때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다. 비록 오늘 아침 산행이 그만큼 고되었지만 내가 느끼는 가쁜 기쁨은 천만금과 바꿀 바가 아니다. 그만큼 흐뭇하다.

이렇게 20여년을 아침 산을 더듬다가 보니 얻은 것이 많다.

우선 몸이 튼실해졌다.

젊었을 땐 주머니마다 감고뿔 약이 떨어질 새가 없던 약골이 이제는 몸살기운을 모르고 산다. 몸이 아파 손 놓고 누운 기억이 산을 타면서 없어져 버렸다.

사람의 삶은 굽이굽이 부대낌이 기다리고 있기 마련이다. 더더구나 어쭙잖은 작품을 쓴답시고 늘 머릿속에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을 달고 다니는 나 같은 사람이야. 풀리지 않는 스토리에 등장인물들의 갈등구조에 부대끼다가도 산만 오르면 가슴 속 스트레스가 바람처럼 사라져 버린다. 참으로 신통방통하다.

그래서 어려운 일만 생기면 나는 우선 산을 찾는다. 산이 생의 카운슬러이고 내 병의 치료사 역할도 해준다.

이렇게 육신과 정신이 맑으니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두고 인사를 건넬 때도 있다. 신수가 흰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네요. 땀 흘리는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무심코 던지고 지나가는 말이지만 듣고 보면 기운이 넘치고 고맙기 이를 데 없다.

이게 아침 산행이다. 아침 산만큼 내가 타는 또 다른 산길이 있다.

바로 글 쓰는 일이다. 산은 드러나는 수확이 눈앞에 있지만 글 쓰는 이 일만큼은 늘 나를 슬프게 만든다. 매달 두 서너 편의 희곡이나 소설, 방송극을 써서 발표하는 나이지만 그렇게 부대끼며 쓰는 글들이 나를 그리 신명나게 하지 않는다.

왜? 생각해 보라. 문인이면 누구나 알 것이다. 잘 쓰나 못 쓰나 글 한 편을 쓰자면 작가는 죽을 고생을 치러야 한다. 그렇게 각고 끝에 발표한 그 글들이 나에게 주는 보상이 과연 무엇인가? 권력도 명예도 돈도 아니다. 그저 지나가는 바람소리마냥 한 번 발표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참으로 허망하다.

이 세상 그 어떤 일도 보상 없는 일은 없다. 허나 이 나라에선 작가가 쓰는 글만큼은 주는 것이 없는 것 같다. 오호통재라. 슬프고도 슬프다. 진정 내가 쓴 그 서푼어치의 글들이 아침 산행만큼 오를 때마다 기쁨을 주는가? 쓸 때마다 신명을 주는가? 산을 타면 그만큼 건강해 지거늘, 내가 쓴 그 글들로 해서 내 주머니가 그만큼 두둑해졌는가?

그 생각을 하면 이웃이 부끄럽고 처자식들 앞에 얼굴 들 면목이 없다. 종일 책상 앞 컴퓨터에서 자판을 두들기는 가장이 그로해서 얻는 보상이 없다면? 그걸 뻔히 보고 있는 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리면 쥐구멍이라도 찾아들고 싶다. 팔부 능선 구부 능선, 가파른 산길처럼 글 쓰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고되더라도 그만큼 보상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이아침 또 다른 산행이 아닌 글쓰기에 매달릴 것이다. 허나 그렇지 못한 현실 앞에 나는 눈앞을 막아선 자옥한 안개길만 본다. 숲은 보이지 않고 가시밭길에 황사 가득한 흙먼지만 보인다. 이게 오늘의 우리 문단 글쓰기다.

이제 가을 해도 서산에 기운다. 기우는 햇살이 눈부시다. 온 누리에 비취는 햇볕 같이 우리 문단에도 환한 문운이 저마다 넘쳤으면 한다.

나는 내일 아침에도 뒷산에 오를 것이다. ☼



성준기 수필가

특집 : 문화예술을 경영하다

- 세계의 문화예술교육을 가다
- 농촌에 뿌리 내린 작은 도서관
-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킹 : 평창의 사례
-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문화교육
- 지역문화경영과정 사업 소개



세계의 문화예술교육을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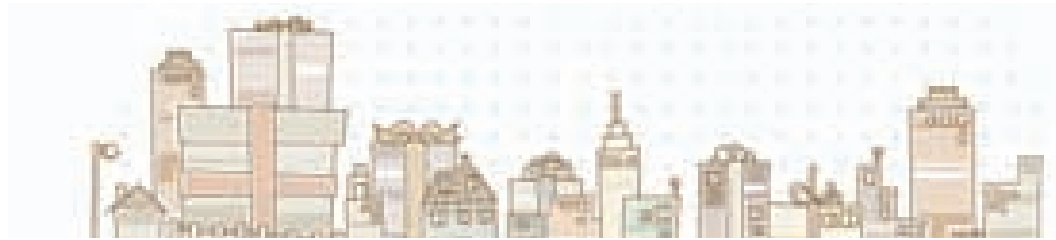
우리는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전환점에 서 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향유자를 위한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새롭게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개인 및 국가의 창의성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왔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설립과 ‘문화예술교육지역센터’의 설치 추진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실천을 위한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기반 시설들이 기존의 사회적 기능에 더해 문화예술교육을 새로운 콘텐츠를 받아들이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진화해 가고 있다. 문화예술인들도 문화예술 활동을 넘어 문화예술교육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여가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추동력을 갖게 된 배경에는 민간 차원의 문화예술교육 advocacy 활동 즉, 일부 교사와 학부모의 지지 속에 전개된 NGO 단체의 ‘문화교육운동’,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46개의 예술관련 학술단체와 예술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낸 ‘미술교육발전공동대책위원회 활동’, 음악, 미술 외의 예술교육을 학교교육에 투입하기 위한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회 활동’, 그리고 여러 예술가 및 문화예술단체들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사회참여 활동 등이 있었다.

이러한 민간의 자발적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 정책 추진이 어우러져 한국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실천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충분한 역량과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달려온 만큼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우리 사회가 아직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만한 사회적 시스템을 완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지금까지의 노력과 그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요청되고 있으며 현 정부는 이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세계의 문화예술교육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의 문화예술교육을 되돌아보는 것은 그동안의 호흡을 가다듬고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서는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문화예술교육은 국가 '미래정책'의 핵심적 요소이다.

먼저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은 이미 예술가의 창의력으로 학교교육을 개선하고자 하는 '창조적 파트너십(Creative Partnership)'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으며 창조적 환경으로서의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미래를 위한 학교 만들기(BSF: Building Schools for the Futur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영국은 국가미래전략으로서 창조성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그 실행 방안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과감한 선택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청소년의 창의력 배양(Nurturing Creativity in Young People)'이라는 부재의 영국 미래정책 속에 담아내고 있는데, 이것은 개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교하게 재설계될 때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2006년 7월 발표된 영국의 미래정책 보고서는 '영국을 세계의 창조 허브(creative hub)로 만들기' 위해 청소년의 창의력 육성을 위한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폴 로버츠(Paul Roberts)에 의해 작성되었다. 그는 취학 전 활동 및 학교활동에서 지원되고 있는 수많은 창의력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들이 파편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현실에 착안하여 이들 창의력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관리·조정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에서부터 사회진출에 이르기까지 교육적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체계성을 갖추기 위한 여덟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교육적 연계의 기준은 학습자이며, 학습자의 삶과 여정을 기준으로 하나하나의 프로그램들이 그들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 아이디어이다.

미래정책 보고서는 '창의성 포트폴리오(Creative Portfolios)'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습자들이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체험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이것을 통해 맞춤형 학습과 평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진학 및 창의산업 분야에의 취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창의산업으로 가는 길(Pathways to Creative Industries)'로서 제도화 하는 방안과 연계된다. 그밖에 유아교육기관의 목표와 지침에 창의력을 명시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며 부모 및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하는 '유아기부터의 조기교육(Early Years)' 제안, '학교 역할의 확대(Extended Schools)', 교육지도자들이 산업 분야에서 창의력을 위한 풍토와 기본틀을 구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의적 학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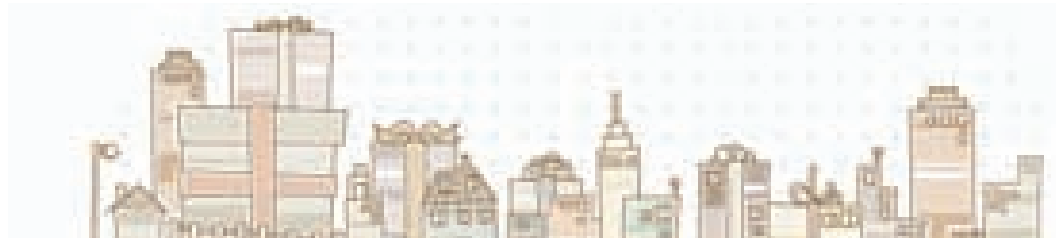
끌기(Leading Creative Learning)', 창의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자격을 인증하여 학교 및 대학과 창의산업 간의 제도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중개 시스템으로서 '실천가 파트너십(Practitioner Partnerships)'의 제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국가와 기업의 공통 과제이다

국제 규모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회의에 참여해 보면 대부분 국가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정부가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점과 지속적인 재원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공통된 고민이다. 문화예술교육이 개인과 사회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sustainable) 재원조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앤 밴 포드는 네델란드 등 유럽 3개국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각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립 서비스'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부분의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국제적 상황 속에서 유독 느긋한 나라가 있으니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전전공공 하는 유럽의 전문가들 앞에서 당당하다. 그들은 민간의 든든한 재정적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상당 수준의 민간 재원이 문화예술교육에 투자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인재양성이 매우 원활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1999년~2003년의 기간 동안 미국경제는 호황으로부터 주식시장 침체를 거쳐 회복기로 들어서는 기간이었으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금은 2억불 수준으로 24% 증가하였고 이는 전체 예술 지원금 증가율(15.2%)을 상회하는 것으로 전체 예술 지원금의 12% 정도가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사용되었다. 기금 형태별로 보면 독립재단 80.7%, 기업재단 10.5%, 지역사회재단 7.7%의 순으로 독립재단이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지원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도전을 통한 교육의 변화를 지향하는 미국의 TETAC 프로젝트(The Transforming Education Through the Arts Challenge)는 예술교육의 질과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예술을 통해 학교교육을 개혁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ETAC 프로젝트는 예술교육을 초등학교 교육의 핵심적인 과정으로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미국 전역의 광범위한 관계자들에 의해 실행되었으며 여기에 기업의 전문가들도 포함되었다. 특히, 재원조달을 위해 자금조달위원이 전국과 지역 차원에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재원조달을 위해 활동하였다.

TETAC 프로젝트는 전국예술교육콘설티움(NAEC)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조금은 아넨버그 재단(Walter H. Annenberg Foundation)의 430만 달러에 달하는 기금이 촉매가 되었으며 그 후, 폴케티 신탁(J. Paul Getty Trust)의 지원금과 NAEC 회원조직들이 지방의 재정후원자로부터 거두어드린 자금을 1:1 매칭펀드 방식으로 조성한 1500만 달러가 프로젝트의 재정적 기반이 되었다. TETAC 프로젝트의 주요 재원조달원으로는 전국단위에서 민간 부문의 폴케티 신탁과 아넨버그 재단, 공공 부문의 오하이오 주립대학이며 지역 단위에서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네브라스카, 오하이오, 테네시, 텍사스 등 6개 주에서 총 18개의 민간 지원 기구와 15개의 공공부문 지원 기구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민간 재원인 폴케티 신탁의 예술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예술교육 지원은 그 성과가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폴케티 신탁은 게티 예술교육센터(Getty Center for Education in the Arts)를 열어 '학문으로서의 예술(arts as a discipline)'에 대한 2차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것은 DBAE(Discipline-Based Arts Education) 예술교육 이론을 정립하는 산실이 되었으며 이 이론은 1990년대 이후 예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 보급되었다. 그리고 이 이론은 예술교육이 재능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고력을 지닌 다양한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궁극적으로 예술교육의 학문적 옹호를 위한 새로운 이론이 되었다. 게티는 DBAE 이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예술교육을 실행하고 보급하기 위해 새로운 세대의 예술교육자를 양성하는 데도 주력하였다. 게티의 십여 년간의 노력의 결실로 약 217개 학교 특별구의 수천 명의 교사와 행정가들이 DBAE 교육을 받았으며 15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었다.

민간의 'Annenberg 재단'은 매칭펀드 방식의 보조금으로 뉴욕시 학교시스템에 핵심 교육과정으로 예술교육을 도입하고 예술을 학교개혁의 촉매자 역할을 하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뉴욕시 예술교육센터(the Center for Arts Education)를 지원하였다. 이 보조금은 2001년 만료가 되었으나 예술교육센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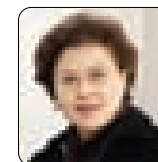
계속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를 확장하여 모범적인 예술가와 교사의 협력 및 심화 전문개발을 위한 자료 제작 및 전파를 하고 있다.

해외사례로부터의 시사점

우리는 이상의 두 가지 해외 사례에서 한국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두 가지 도전과제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원칙을 재정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급속한 정책의 추진으로 중앙과 지역 단위에서 다수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산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들은 별다른 평가와 검증 없이 수요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들 프로그램들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과 효과를 확인하고 검증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때 '학습자 중심'이라는 대원칙을 세우고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는 영국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재정의 안정화이다.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은 전액 국고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규모도 미미하다. 문화예술교육이 미래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기업 또한 자신들의 과제를 학교 교육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풀지 못하고 있다. 미래의 인재양성이 정부, 학교, 민간기업간의 원활한 네트워크와 시스템 속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효과를 사회 전반이 공감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우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위한 홍보 및 설득활동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가운데 앞으로 보다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정연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획홍보팀장

농촌에 뿌리 내린 작은 도서관

쉬지 않고 가꾸어 지켜온 도서관

새삼스럽게 원고 청탁을 받고 잇고 살던 지난 시절을 돌이켜 보니 28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속에서 겪어 온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을 세 번이나 보내면서 숱한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쉬지 않고 가꾸고 견디어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위한 일도 아니고 오직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몸이 재산인 농촌 생활에서 철저하게 모든 일을 몸으로 겪으면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꿨어 죽어도 종자 자루는 베고 죽는다!’ 던 선대 농부님들의 마음처럼 ‘하루 세끼 끼니는 굶어도 도서관 문은 닫을 수 없다!’ 는 오기로 견디어 온 것이 오늘날까지 도서관을 운영해 온 결과인 것이다.

1981년 7월, 지은 지 오래되고 초라하게 방치되어 있던 마을 회관을 마을 청년들이랑 힘을 모아 청소를 하고 다듬어 마을에서 모으고 선배들이 보내 준 낡은 도서 500권이 서가도 없이 방바닥에 쌓아 두고 이용하던 것이 텃밭도서관의 시초였다.

시작은 보잘 것 없었지만 책이 귀하던 시절이었고, 아이들이 요즘처럼 과외에 시달리는 때가 아니었기에 독서 인구는 많았고 비록 낡고 표지가 찢어진 책이지만 재미있게 읽어 주는 아이들이 한없이 고맙고 예뻐서 한 권의 책이라도 더 모으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다.



창원시 새순어린이도서관 가족들의 방문

그러나 농사일을 하면서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고 농사꾼이 스스로 살아남기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없이 투자를 해야 하는 도서관 운영은 순간순간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였지만 우유배달이나 신문배달을 해 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

시간이 흐르고 책이 1000권, 2,000권으로 늘어남에 따라 좀 더 나은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는 욕심도 커졌고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당을 운영하여 아이들에게 천자문이나 사자소학, 일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고, 아이들의 독서가 책을 읽는 일에서 끝내지 않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문예지를 만들어 창작 의욕을 북돋우며 스스로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애들이 도서관 왔다!” 경운기 도서관의 시작

1991년 5월 15일 창간하여 매월 15일에 발간되는 문예지 ‘바구리봉’은 문예 작품과 함께 간단한 지방 소식지로도 활용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출향인들에게 까지 우송되어 항상 고향을 잊지 않고 고향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으나 막대한 운영자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령 47호를 마지막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이 일은 지금 생각해도 계속하지 못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신문 발행을 하면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 결코 손해 본 일은 아니었다.

그런 와중에서도 도서관 운영을 가장 힘들게 하였던 것은 전국적으로 불어 닥친 이농현상이었다.

여느 농촌들이 공통적으로 겪어 온 일이었지만 빈집들이 늘고 노인들만 외롭게 사는 집이 많아지면서 청소년이나 아이들의 숫자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상이 대부분 학생들이고 보니 몇 명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많은 책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에 문고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까지 독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90cc 오토바이에 책꽂이를 만들어 싣고 다니며 빌려주었으나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장서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포장도로가 대부분인 농촌의 도로 환경 때문에 오래 하지 못하고 거듭 생각한 방법이 경운기를 이용한 이동도서관이었다.

처음에는 앵글로 책꽂이를 제작하여 책을 싣고 인근 마을을 찾아가 회관 앰프로 방송을 하여 아이들을 불러 모아 책을 대출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반납과 대출을 반복하며 운영하였는데, 많은 아이들이 호응하고 이용하였지만 이 방법 또한 문제가 많았다.

한꺼번에 400여권의 책을 실을 수 있어 좋았지만 책꽂이 하나에 200권이 넘는 책을 매번 싣고 내리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었고, 책이 쏟아지지 않게 단단하게 고무줄을 동여매니 철제 책장도 견뎌 내지 못하여 덜컥거리느라 들길을 달리다 보면 책이 쏟아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보다 편리하게 많은 책을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고심하던 중에 농촌의 실정에 맞는 이동도서관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철공소를 찾아가 의논을 하였다.

마땅한 모델이 없으니 쉽게 만들기도 어려웠지만 몇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경운기 이동도서관을 완성하였을 때는 세상에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기분이었고 대한민국, 아니 세계 최초의 경운기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는 자부심은 그 동안의 어려움을 깨끗이 잊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이면 모든 일을 제쳐 두고 경운기 도서관을 몰고 넓은 들녘을 가로질러 흥겨운 동요를 소리 높여 울리며 이 마을 저 마을로 책을 실어 날랐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 노랫소리만 들리면 아이들은 책을 챙겨 들고 동구 밖으로 모여들었다.

경운기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자 생각하지도 않았던 많은 손님들의 방문도 받게 되었다. 여러 언론 관계자들의 방문이 이어졌고 매스컴에 소개도 되었다. 또 이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1993년 12월 20일 제13회 국민 독서 경진 대회에서 문고 운영 부문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으며, 1994년에 11월 28일에는 영예스러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덕분에 보다 양질의 도서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도 하여 책은 늘어 갔지만 도서관이 책만 많이 모아 둔다고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었다.

가장 필수적인 것이 독자들이었는데 세상이 바뀌고 농촌 마을에 아이들이 줄어들게 되니 경운기를 끌고 이웃마을까지 찾아가도 예전만큼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 있던 도서관을 진상면소재



삼삼오오 모여 물에 발도 담구어 본다.



이곳에서는 책뿐만 아니라 놀이거리도 많다.



시원한 평상에서 자유롭게 책 읽는 아이들



앉아서, 때로 누워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책을 읽는 아이들



딱딱하고 근엄한 곳이 아니라 자유로운 분위기의 도서관

지로 옮기어 진상 중 고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점포를 빌려 도서관을 여니 한동안은 잘 이용되었으나 이것 역시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야간자율학습이니 보충수업이니 하여 밤늦게 학교에서 나오는 학생들에게 맞출 수가 없게 되었다.

텃밭도서관으로서의 모색

결국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주말을 이용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텃밭도서관으로의 이사였다.

오랜 세월동안 벼농사를 지어 오던 문전옥답에 도서관을 만들고 넓찍하게 놀이공간을 만들어 아이들이 마음껏 놀며 책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었다.

생각처럼 환경을 바꾸고 꾸미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가장 걱정이 되는 일은 먼 거리에 있는 도서관까지 아이들이 얼마나 찾아 와 주느냐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썰렁하던 도서관이 놀이터를 만들고,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이기구들을 갖추고, 인터넷에 '농부네 텃밭도서관'이라는 카페를 만들어 도서관 홍보를 하면서 멀리서 찾아오는 독자들이나 구경꾼들이 맘 편하게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알려지니 조금씩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실제로 다녀간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심심하지 않을 정도로 이용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가까운 곳에서만 가끔씩 아이들이 찾아오던 마을도서관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근 도시 지역까지 이용 범위가 넓혀지게 되었고, 이제 전국 각지에서 끊임없는 방문이 이어지면서 가끔은 외국에서도 다녀가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자연 속의 편안한 텃밭도서관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이곳은 어디든 도서관 아닌 곳이 없다.

농부네 텃밭도서관의 특징이라고 하면 독서가 우선이 아니라 즐겁게 뛰어 놀면서 잠시 쉬는 시간에 손쉽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서관이다.

7,000㎡ 정도의 면적에는 직접 수확하여 맛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채소들이 가꾸어져 있고 농촌에서 기르는 동물들이 자라는 모습이나 옛날 아이들이 가지고 놀았던 갖가지 놀이기구들이나 생활 도구들이 과거 모습 그대로 활용되고 있어 책이나 전시관처럼 보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며 느낄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추억을 회상하며 더 즐거워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와 문화를 제공하는 작은 도서관의 힘

작은 도서관을 오랫동안 운영해 오면서 가장 아쉽게 느낀 것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도서관들이 학교나 도시 지역에 만들어져 있지만 많은 도서관들이 책을 통하여 정보나 문화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단순한 독서실 형태로 성장해 왔다는 것이었다.

세계가 한 가족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첨단 정보화시대에 도서관은 정말 살아 있는 정보가 독자나 이용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문화 거점 공간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이 절실히 진다.

그렇다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만한 지혜도 없으니 여태까지 시골마을의 농부가 만들어 28년 동안 견디어 온 작은 도서관이 도시인들의 심신을 달래고 콘크리트 문명 속에서 메말라 가는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근래에 전국 방방곡곡에 새롭게 만들어 지고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각자의 위치에 맞는 특징 있는 도서관으로 발전되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도서관 문화를 변모하는데 큰 몫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공룡처럼 큰 도서관들이 하는 몫도 있지만 그 틈새에서 작아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따로 있는 것이다.

농부네 텃밭도서관도 이제까지는 견디어 내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었지만 이제 후대에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알찬 도서관으로 만드는 일에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다.

도서관 운영비 중 인건비가 도서 구입비의 몇 배가 더 들어가는 세상에서 도서관 스스로 살아남고 성장해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면 그것도 재미난 일이 아니겠는가!

결코 도서관은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이나 가게가 아니라 독자나 이용자들의 사랑스런 발자국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성장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

농부네 텃밭도서관 발자취

- 1981년 7월 25일, 청도마을 회관에서 도서 500권으로 새마을 문고 시작.
- 1985년 12월 20일, 한문서당 개설(이 후 10년간 운영)
- 1987년 9월 19일, 경운기 이동 도서관 운영.(10년간)
- 1991년 5월 15일, 월간문예지 '바구리봉' 창간. (5년동안 47호 발행)
- 1993년 12월 20일, 제13회 국민 독서 경진 대회에서 문고 운영 부문 전국 최우수상 수상.
- 1994년에 11월 28일, 대통령 표창 수상.
- 2005년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선정(문화관광부)- '농부네 텃밭도서관' 으로 명칭 변경
- 2007년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순회 도서 교환전 실시(19개 도시에서 19회)
- 2008년 3월 21일,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공로상 수상.



서재환 농부네 텃밭도서관 지킴이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킹

- 평창의 사례

문화와 삶

이제는 가히 문화의 시대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문화는 순수예술에서 산업화된 분야까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그 가치와 효용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개인에게는 정서의 고취와 창의력의 증진, 감수성과 심미안의 계발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양상은 개인의 환경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일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가뭄의 단비와 같다. 하지만 동시에 문화예술은 물과 공기처럼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어 평소엔 그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공연을 보거나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일은 당장에 생계와는 동떨어져 있는 듯 하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웬 호사냐고 편잔을 들을 수도 있다. 오랫동안 우리는 남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더 일하여 경쟁에서 앞서는 것이 최선의 덕목이요, 실효적 가치가 우선인 분위기에 익숙하다. 그러니 문화예술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실제로는 당장은 급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문화예술의 효과성은 그 속성상 짧은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법이기에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원하는 환경에서는 중요하기는 하나 당장은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정책에서나 개인의 생활에서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인은 물론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처지도 별반 다를 바 없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뻘뻘한 수업시간만도 버거워서 자율학습이다 학원이다 바쁘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문화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간해서는 쉽지 않다. 혹여 뭘 취미라도 붙이려면 공부에 방해된다고 불호령이 떨어지기 일쑤다. 본격적으로 예술을 전공을 하려는 학생은 그 순간부터 아예 판 세계 친구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그런데 양질의 문화예술은 마치 좋은 술이 오래 묵어야 그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오랜 축적의 산물이다. 마약이나 특효약처럼 특단의 조치로 단박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예술적 소양도 어느 날 갑자기 관심을 갖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긴다고 한꺼번에 그 경험치를 늘릴 수도 없다. 문화예술 향유력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과 체험이 병행되어야 길러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경영에서 '한 사람의 좋은 관객이 길러지는 데에는 한 명의 위대한 예술가가 탄생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동안 정책적으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 예술 자원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공급자 위주의 환경에서 살아왔다. 즉 예술가를 길러내고, 문화시설을 짓고, 문화단체를 지원하는 등의 일이 우선이었다. 그래서 이른바 '예술교육'이라 하면 이런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한 기능적 교육이 주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도 점차 다양해지고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향유자 위주의 정책과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나아가 단순한 소비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은 소위 좋은 관객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대두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세 가지 중요한 환경으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로 꼽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그 전문성이나 인프라 활용의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문화공간과 기관들이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지역에 기반한 많은 시설과 단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내용도 주입식 강습이나 취미 생활수준을 넘어서 점차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일반 시민들 외에도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이주여성, 군인, 재소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나 특수한 환경에 있는 대상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이 짧은 시간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공공지원과 지역사회의 의지 그리고 문화계의 노력이 잘 어우러진 덕이라 볼 수 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제공은 문화예술에 대한 개인의 소양과 이해도를 높여 그 향유의 폭과 깊이를 더하게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관객을 육성하여 저변을 두텁게 하는 이른바 미래 고객의 창출에도 기여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유교적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는 일반적인 문화예술 향유에는 인색해도 교육적인 의미를 강조하면 더욱 큰 호응을 얻을 수 있기도 하다.

지역과 문화원의 역할

그런데 농어촌이나 지방 소도시에서는 그 인프라가 척박하고 전반적으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문화예술회관이나 지역의 기반한 문화단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많은 성과가 있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전국 시군구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오랜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 풍부한 경험이나 지역과 밀착된 유기적인 네트워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한데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은 문화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원은 물리적인 공간과 함께 사무국의 행정능력과 프로그램 수급 그리고 강사의 안정적인 확보를 할 수 있어서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점차 그 대상이 많아지고 프로그램의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을 때 아무래도 그 요구를 독자적으로 다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래서 기존 문화원의 장점을 살리면서 지역의 관련 있는 기관이나 문화공간 또는 문화단체가 필요한 영역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한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강원도 평창의 평창문화원과 지역의 문화단체와 공간의 협력 체계는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평창문화원은 3년째 지속하고 있는 <땡땡 실버문화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민요 보존과 교육을 위한 <한치 뒷산 곤드레 딱죽이>라는 지역민요 아라리 보존 및 교육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지역의 특성상 점차 늘어가는 외국인 결혼 이주 여성과 가정을 위한 <지구촌 아낙의 명석을 깔아드립니다>라는 이름의 문화예술교육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역의 이주여성과 가족은 매주 화요일 모여 한국문화와 생활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음식도 만들어 나누며 이국 생활의 어려움과 기쁨을 정기적으로 나누고 있다. 금요일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노래 강사와 한국노래 교실을 하고 있다. 또한 평창아라리 보존회 회원과 주민들은 그동안의 단조로운 연습 위주의 모임에서 공연, 음반, 영상 등의 방법을 도입하여 보다 그 활동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지역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다.

창의적 지역 네트워킹

그런데 평창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수행될 수 있는 데에는 문화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문화공간과 기관, 단체들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개방적으로 활용하고 협력하는 데 기인하고 있기도 하다. 기본적인 사업의 계획과 운영은 평창문화원이 주도적으로 하되, 이를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자문은 전문 문화단체인 감자꽃스튜디오가 지원하고, 그 대상을 주관하는 것은 국제가정협의회와 평창아라리 보존회가 나누어 맡고 있다. 협소한 문화원의 공간 제약을 넘어 지역의 폐교를 개조한 감자꽃스튜디오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있으며 면사무소 복지회관과 읍내의 평창문화예술회관이 유기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 기획과 운영 그리고 관리가 협력적이며 일관성 있게 돌아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든 것이다. 이를 위해 평창군과 각 읍면사무소 그리고 민간인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각 주체가 기 확보한 지원 예산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중복투자와 비효율을 막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이렇게 문화원이 주도적 역할을 하며 다른 유관 기관들이 화답하여 보완하고 협력하여 서로의 부담은 나누고 그 결실은 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주체들 간에는 열린 자세와 적극적인 협조 체제 및 호의적인 관계의 설정이 있었다. 진정으로 긍정적인 창의적 네트워킹은 단순히 '업무협조' 나 '공간제공' 수준을 넘어서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만나 소통하며 협의하고 머리를 맞대어 최선의 방법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협력적 관계가 형성될 때 가능하다. 이러한 체계의 중심에 문화원이 서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지역의 문화적 리더십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평창문화원은 그 모범 답안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이선철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평창문화원 이사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문화교육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문화교육’이란 제목의 글을 풀어가기 위해 현재 내가 속해있는 문화원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문화교육을 분석해보는 방법을 취하기로 했다. 지역문화에 대한 원론적인 정의를 통해 문화교육에 접근하기 보다는 현재 지역의 문화 활동 주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보면서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어떻게 접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 ‘지역문화의 정체성’은 결과로서 목표가 아닌 그 자체를 과정으로 보기 때문이다.¹⁾

2001년 ‘지역문화의 해’를 기점으로 지역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고 이를 프로그램화하려고 노력했지만 2006년 청소년들을 위한 마을조사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역문화가 아닐까” 생각한 적이 있다. 역사문화탐방 사업으로 ‘우리고장 유성의 마을을 찾아’라는 마을조사를 하게 되었다. 해설사들이 문화재 등을 찾아가 설명해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가 영역으로만 알려져 왔던 마을조사를 청소년들이 하는 방식을 시도하였다. 7월부터 9월에 이르기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했던 마을조사 결과발표회를 가졌다. 참가했던 학생, 지역민, 해설사가 모여 마을조사가 갖는 의미를 드러내는 시간이었다.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을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우리 마을에 대해 말할 것이 뭐있다고 이렇게 찾아오느냐”라고 했는데, 과정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이 왜 의미가 있는지 새삼 알게 되었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하잘 것 없다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이 과거의 삶을 물어보고 이에 답해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과 마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였고 뿌듯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평범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삶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의미를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마을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 발표회를 계 이런 곳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더 알고 싶어 소식지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확대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서로가 ‘찾아가는 문화교류’를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서로가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문화의 정체성

내가 속해있는 유성문화원은 유성구라는 기초단위 지자체에 한정되어 이미 지역을 상정하고 있기에 문

화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때 의식적으로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염두에 두게 된다. 문화교육의 방법은 기능습득, 단순문화체험에서부터 여러 가지 장르를 동원한 문화예술교육을 시도하고 있으며, 내용은 지역 내의 문화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는 소재를 택함으로써 참가자들이 지역의 문화를 느끼고 알게 됨에 따라 지역사랑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문화교육

문화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규적인 문화학교 강좌를 포함하여 일시적인 문화프로그램 등을 총칭하여 사용한다. 문화원 문화교육은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과 지역의 정체성을 염두에 둔 프로그램으로 주로 일시적인 기금 사업²⁾에 해당한다.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문화교육 사례분석 결과

사례분석은 유성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교육에서 정규적인 문화학교 강좌교육이 아닌 주로 기금을 받아 일시적으로 운영한 지역의 정체성을 염두에 둔 프로그램으로 우리지역의 문화알기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지면의 제약상 2006년 복권기금 사업으로 운영한 ‘내 고장 유성의 마을을 찾아’라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을 토대로 종합해보면

첫째, 복권기금사업 등 기금사업이 제공되면서 그동안 지역문화 확산을 목표로 했던 문화원 등의 문화기관과 단체들이 지역문화와 관련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화하였다.

둘째, 2004년부터 문화예술교육이 확산되면서 지역문화체험프로그램이 정교한 문화교육으로 확장되었다.

셋째, 문화교육의 확장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유통되던 지역문화가 대중화되었다.

넷째, 우리고장문화해설사 등 문화매개자(촉매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졌고, 이들 문화동아리들이 지역문화 대중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문화활동의 중간층을 두텁게 해주었다.

다섯째, 결과적으로 지역문화 대중화 교육을 통해 지역민들이 지역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는 과정을 갖게 되었다. 동일시는 곧 문화교육을 통한 지역문화 정체성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1) 본 글에서 ‘정체성’은 identity에 가까운 용어이다. 한 사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공부이고 공부하는 수련의 방법으로 교육을 정의한다면,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문화교육일 수 있다.

2) 기금공모사업의 경우, 문화활동가들이 평소 생각해왔던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수 있다. 이들 공모사업들은 문화활동가들의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지역민들 역시 새로운 프로그램에 목말라했던 만큼 참가자들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며 좀더 질 높은 문화프로그램을 요구하게 된다. 경험적으로 작년에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을 올해 또다시 반복하면 참여율이 떨어지며, 새로운 프로그램에는 참여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기획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문화교육 사례

마을조사의 대중화

‘내 고장 유성의 사라져가는 마을을 찾아’ 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발단은 첨단 과학도시로 알려진 대전 유성지역에도 오지 마을은 있고, 옛 농촌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들이 있었으나, 급격한 도시팽창과 아파트 개발로 인해 농촌마을이 사라져가고 있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들 마을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야한다는 필요성이 논의되는 자리에서였다. 소위 마을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유성문화원의 ‘우리고장문화해설사’ 들간에 나오고 있었다.

2004년 9월에 조직된 유성의 문화 알림이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고장문화해설사’ 들은 2004년 당시 시작된 유성문화원 중심 네트워크 사업과 복권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탄생된 조직으로 유성지역의 문화재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역사탐방 사업을 주도해오고 있었다.

이제까지 전국의 문화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한 마을조사 자료는 주로 대학교수와 향토사연구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나, 그러한 자료가 발간되고 나면 그뿐이고 전문가들 이외에는 읽혀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지역마다 문화유산해설사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마을조사 결과보고서에도 관심을 갖고 자료가 활용되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복권기금사업 ‘역사문화탐방’ 은 주로 내 고장 유성을 알아 가는데 초점을 두어 우리고장문화해설사들이 해설해 주는데 주력해 왔었다. 해설사들은 그동안 해설을 해오면서 대상에 적합한 해설방식을 고민하면서 시도해오고 있었다. 문화재 앞에서 단순 해설만으로는 청소년들에게 흥미를 줄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다 마을조사의 방식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고장의 역사문화를 이해하고 애정을 갖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마을어르신들이 해설사로 나서다

문화유산 답사의 매력은 문화유산이 있는 그 현장을 찾아가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이해력을 높인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한 방법이지만, 마을조사의 방식은 특별한 문화재의 성격을 띤 형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사람들을 만나 그 지역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원형을, 삶의 방식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막연하게나마 기대했던 효과는 참가자 뿐 아니라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에게도 반향을 줬다. “우리 마을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아이들이 몰려와서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냐” 했지만 막상 아이들에게 이야기꺼리를 만들어 제공해야한다는 부담을 갖게 되면서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 꺼리를 구성하고 아이들에게 더 보여줄 것이 없는지 찾게 되어 그동안 창고에 넣어두었던 지게, 씨레 등의 농기구 등을 꺼내 아이들에게 보여주

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시범을 보여주었다.

살아있는 박물관

아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같은 행정구역에 이런 시골도 있는지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박물관에서 보던 농기구를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마을의 창고가 생활도구 박물관이라고 하였다. 소위 ‘박물관이 살아있어요’ 였다.

마을어르신들은 자신이 살아온 삶과 마을에 대해 이야기해주면서 이런 이야기도 교육내용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야기 해주는 과정에서 마을에 대한 자부심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게 되면 더 공부해서 하겠다는 다짐도 받게 되었다. ‘지역문화 활성화’ 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깨우침을 얻게 하는 대목이었다.

우리고장문화해설사들은 유성지역의 사라져가는 마을조사에 초점을 두지는데 합의한 다음, 2006년 복권기금 사업 중 ‘역사문화탐방’ 은 지역의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조사 형태를 취하자는데 동의하였다.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갈 부분은 연구자들이 이제껏 해왔던 마을조사의 형태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을조사 진행자로 나설 우리고장문화해설사들이 전문가와 간단한 워크숍도 하고 사전답사도 다녀보았지만, 많은 학생들을 이끌고 다녀야하는 부담감, 답다고 투덜거리는 어린 학생들, 막상 많은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하길 두려워하는 마을 어르신 대신 해설사가 담당해야할 몫이 작지 않았다. 그만큼 사전에 각본이 필요하였고, 이 각본을 만들기 위해 해설사들은 마을어르신과의 사전 교섭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 마을어르신들과 친숙한 교류가 이루어져 우리지역의 문화원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를 깊이 각인시킨 커다란 성과중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업은 마을 조사 형태를 인용한 교육프로그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유사한 사업수행 경험

유성문화원은 2004년 유성지역의 역사문화의 자료수집과 안내를 위한 ‘우리고장문화해설사’ 를 양성하여 2004, 2005년 복권기금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대상(시설청소년, 노인, 모자가정, 정신지체장애인 등) 유성관내 문화재 탐방, 유성의 역사문화인물인 서포 김만중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등의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해왔었다. 2006년도에는 해설사 중심의 문화재 안내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을조사 형태의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시도하였다. 2007년도에는 학생들 휴업일인 2째, 4째주 토요일에 ‘토요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유성지역의 역사, 생태문화체험에 주력하는 한편, 신도시개발로 사라져가는 마을을 인터뷰하고 영상물로 기록하는 작업을 하였다.

참가자 모집

사회취약계층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반 청소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협조로 유성구 뿐 아니라 대전광역시에 공문을 보내어 협조를 받았고, 본 프로그램 참가 시 자원봉사가산점제를 도입하여 학교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예상외의 인원이 참가할 수 있었다.

사회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우는 사회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방과 후 프로그램 참가학생, 그리고 학교직접 신청 등으로 참가하여, 총6회 마을조사에 25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6회 참석 총인원은 진행 및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474명에 이르렀다.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내용

- 우리고장문화해설사로부터 마을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 설명
- 마을 어르신 인터뷰: 마을의 지명유래, 전설, 민속신앙, 마을의 생활사, 개인의 생활사 등
- 문화체험: 진잠향교 모의 석전대제 체험, 솟대 제작 체험, 산림욕장 계곡 물놀이, 농기구 설명등기, 농기구 직접 들어보기, 비석 탁본 등
- 동네어르신들이 만들어주신 음식(비빔밥, 부침개 등) 먹기
- 마을답사기 작성하여 발표하기

본 프로그램의 의의

- 참가학생: 기존 해설사들의 설명 안내 위주로 따라다니던 역사문화탐방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마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역문화의 본질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 지역주민: 마을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우리 마을에 무슨 이야기 들을 것이 있다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였다가, 막상 우리고장문화해설사들의 적극적인 사전답사 시 의견개진, 학생들이 질문을 통해 자신의 마을 이야기를 전해주는 과정, 그들이 사용했던 농기구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것들도 역사이고 문화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다. 또한 최종 발표회 때 그동안 촬영한 비디오를 보면서 마을조사의 의의를 확인하였고, 다음 기회가 되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을 얻었으며, 발표회 때 문화원에 오시게 되면서 우리 지역에 문화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문화원 소식지를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에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지역의 문화시설과 연계를 갖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

- 진행자: 우리고장문화해설사들도 문화재 중심의 해설에서 탈피하여 마을의 살아있는 생활사를 좀 더 알게 되고 지역 어르신을 자주 만나게 되면서 해설의 깊이를 더하게 되었고, 앞으로 역사문화탐방 사업은 이러한 마을조사 형태로 계속해 보아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특히 그동안 같고 닳은 해설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뿌리내려온 삶에 더 의미를 두게 된 계기가 되었다.

지역내 교류

- 유성관내 사회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동사무소의 협조로 사회취약계층 참가자 모집을 했다.
-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도움으로 학교 협조공문 발송, 또한 학교 선생님과 학교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본 프로그램 취지 전달되었고, 학교 선생님께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충남대학교 평생교육사 과정 실습생의 도움으로 행사지원협조를 받았다.
- 마을에서 이야기를 해 줄 대상자를 만나기 위해 노인회장, 동장, 통장님의 도움을 받았고, 학생들이 먹을 음식과 휴식할 수 있는 장소 등을 지원받았다.
- 교촌동의 경우 진잠향교가 있어, 진잠향교가 봄 가을로 진행하고 있는 석전대제를 학생들에게도 보여 줄 수 있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모의 석전대제를 준비하기 위해 진잠향교 전교님과 관계 어르신들로부터 협조를 받아 성공리에 진행할 수 있었다.

성과

- 이번에도 시도한 마을조사 프로그램은 이제까지의 단순한 문화재 답사 차원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지역문화 알기 프로그램을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온천관광지이고, 대규모의 과학연구단지가 있는 곳으로 대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 곳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많은 수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번 마을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전통적인 농촌마을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명은 충분치 않았지만 여러 가지로 느낌을 갖게 하였다. 또한 그분들이 직접 해주신 부침개, 비빔밥 등을 먹으면서 고마움을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지역문화’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으로부터 직접 들을 때 참가자들도, 설명 해주시는 분들도 자신의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지역문화를 비로소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다. ☺

※ 이 글은 한국문화교육학회 제4차 콜로키움(2008.6.14) 발표내용을 축약한 것입니다.



이춘아 대전유성문화원 사무국장

지역문화경영과정 사업소개



지역문화경영과정은 지방문화원 직원 및 문화원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사업이며, 올해로 3년째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은 지역사회에서 지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문화주체로서 확고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원 인력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교육사업이다.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교육 방법 및 교육수요 등을 조사하여 그에 맞는 과목구성 및 강사섭외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전문적인 이

론 정립은 물론 문화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재개발에도 중점을 두었다.

2008년에는 찾아가는 교육의 일환으로 5월에 3박4일간 전주 한옥마을에서 36명이 참가한 초급과정이 있었으며 중급과정은 8월에 3박4일간 강릉 선교장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두 차례 교육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이론 및 실무과목, 지역문화 탐방 및 문화체험, 분임토의 및 필기시험 등이며, 출석률 90%를 넘지 못하면 필기시험을 치를 수 없게 하는 등 전 과정의 참여도를 매우 중시하였다.

각 과정의 차별화를 위해 초급과정은 기초이론과 실무과목을 중심으로, 중급과정은 세미나수업과 심화 학습(현장실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종합평가 70점 이상을 받은 수강생들은 문화원연합회 회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었다.

지방문화원은 최근 급격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부터 실시한 문화원 사무국장 공채제도 도입으로 전문적이고 문화의지가 강한 사무국장들이 대거 등장하였으며, 적극적인 경영마인드를 지닌 문화원장들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문화원이 많아지고 있다.

본 과정은 전문적인 인력들에게는 새로운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재교육의 장으로, 또한 오랫동안 문화원에 일하면서도 체계적 교육을 받지 못한 문화원 인력들에게는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문화원간 활발한 정보공유를 통한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매개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송은옥 한국문화원연합회 연구원

2008년 지역문화경영과정 (초급) 강사진

교과목	강사	소속	
지역의 역사와 문화 (개강특강)	조법중	우석대학교 사학과 교수	
*문화유산관리론	최종호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	
프로그램 운영사례연구	심오섭	강릉문화원 사무국장	
*문화기획론	이종인	문화행정연구소 소장	
문화체험	조희숙	전주시 전통문화과공무원	
제도와 법규	장상호	한국문화원연합회 총무국장	
*지역문화 스토리텔링	박덕규	단국대학교 문창과 교수	
*지역문화행정론	박상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전문위원	
*문화정책론	이홍재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지역문화해설방법	서순복	조선대학교 법대 교수 한국문화관광해설사회장	
문화정보 활용실무	이호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코예술정보관장	
분임별 종합발표	이홍재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명지대 겸임교수	
분임토의 1, 2 (컨설팅)	1 조	박찬용	전북 남원 사무국장
	2 조	김대호	전북 김제 사무국장
	3 조	김진돈	북 전주 사무국장
	4 조	이춘아	대전 유성 사무국장
	5 조	조준원	전남 곡성 사무국장
합계	35		

2008 지역문화경영과정 중급 강사리트

교과목	강사	소속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역사학자)	박도식	관동대 사학과 교수	
	이근직	문화재청 전문위원	
문화예술교육세미나	박상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책임연구원 전)아코예술인력개발원장	
지역의 문화경영	이홍재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명지대학교겸임교수	
축제기획과 평가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다문화프로그램기획	신동호	리서치 21 대표	
미디어홍보 세미나	임연철	중앙대예술대학원 초빙교수	
프로그램 운영사례연구	이결재	공주시청 공무원	
문화체험①②	강릉	강릉선교장	다도, 목공예
	경주	박경민, 최은정	선무도, 웃음요가
지역문화탐방	강릉	박도식	관동대 사학과 교수
	경주	김구석	경주남산연구소 대표
분임토론 ①② 컨설팅	운영위원	이종인	한국문화행정연구소장
		이홍재	주정보영상진흥원장
		박덕규	단국대 문창과 교수
	외부	박상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연구원
종합발표 /진행	외부	안이영노	기분좋은 트렌드 하우스 QX 대표
	강릉	이종인	한국문화행정연구소장
	경주	이홍재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명지대학교겸임교수
	35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의 상장례문화

1. 상장례의 의미

상례(喪禮)란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부터 시체를 갈무리하고 근친들이 그 죽음을 슬퍼하여 근신해 복을 입는 방법과 일정한 기간동안 복을 다 입고 정상생활로 돌아갈 때까지의 각종 의식 절차를 정한 예를 말한다.

사람의 죽음을 갈무리하는 예라면 죽음의 예라는 뜻에서 '사례(死禮)'라고 해야 할 텐데 '사(死)'를 쓰지 않고 '상(喪)'을 써서 '상례(喪禮)'라고 하는 까닭은 군자(君子)의 죽음은 사람노릇(行道)이 끝나는 것이라 종(終)이라 하고, 소인(小人)의 죽음은 사람노릇과는 상관없이 육신만 살다가 가는 것이라 사(死)라 하는데 그 두 가지를 포괄하는 상(喪·없어지다)을 쓰게 된 것이다.

옛날의 상례는 죽음을 맞는 초상(初喪)과 근친들이 상복을 입고 근신하는 성복·복상(成服·服喪)과 주검을 처치하는 치장(治葬)이었는데 현대는 성복·복상이 없어지고 초상(喪)과 치장(葬)만 남았으므로 그 두 자를 합하여 상장례(喪葬禮)라 한다.

2. 장기(葬期)의 변천

고례(古禮)의 상례는 죽음에서부터 묘지에 매장하는 기간을 창기(葬期)라 한다.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장기가 달랐는데 그 이유는 신분에 따라 묘지의 규모가 달라 그 준비 때문이었다.

- (1) 7월장(7月葬): 제황(帝皇)은 죽은 달부터 일곱 달에 장례를 치렀다.
- (2) 5월장(5月葬): 왕(王)이나 제후(諸侯)는 죽은 달부터 다섯 달에 장례를 치렀다.
- (3) 3월장(3月葬): 대부(大夫)라고 해서 높은 지위의 벼슬아치가 죽으면 죽은 달은 치지 않고 석 달(즉 2월에 죽었으면 5월에 장사지냄)에 장례를 치렀다.
- (4) 유월장(踰月葬): 벼슬이 낮은 사람이나 선비가 죽으면 죽은 달까지 계산해서 석 달(즉 2월에 죽었으면 4월에 장사지냄)에 장례를 치렀다.
- (5) 삼일장(三日葬): 그러나 요사이는 일반적으로 3일장을 치른다.

3. 옛 상복의 종류와 기간

죽은 이와 8촌 이내에 드는 근친은 가깝고 먼 친소에 따라 죽음을 슬퍼하고 근신하는 뜻으로 험한 상복(喪服)을 지어 입고, 각기 정해진 기간을 복상(服喪)했다.

상복의 종류는 다섯 가지(五服)이고 입는 기간까지는 아홉 가지(九服)이다.

- (1) 참취복 3년(斬衰服三年): 영근 삼베로 짓고 단(가위로 옷감을 자른 가장자리)을 꿰매지 않은 상복을 입고 대나무지팡이를 짚는다. 입는 기간은 24개월이다. 주로 아버지의 상에 아들 며느리 딸이 입는다. 지팡이는 대나무이고 길이는 가슴 높이이다.
- (2) 자취복 3년(齊衰服三年): 영근 삼베로 짓고 단을 꿰맨 상복을 입고 오동나무나 버드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짚는다. 입는 기간은 24개월이다. 주로 어머니의 상에 아들 며느리 딸이 입는다.
- (3) 자취복 장기(杖菴): 상복은 자취복과 같고 버드나무나 오동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짚는다. 입는 기간은 12개월이다. 주로 죽은 이의 남편, 아버지는 살았는데 죽은 어머니의 상에 아들 며느리 딸이 입는다. 지팡이는 자취3년과 같다.
- (4) 자취복 부장기(不杖菴): 상복은 자취복과 같고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 입는 기간은 12개월이다. 주로 죽은 이의 손자 조카 형제자매가 입는다.
- (5) 자취복 5월(五月): 상복은 자취복과 같고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 입는 기간은 5개월이다. 주로 죽은 이의 증손자가 입는다.
- (6) 자취복 3월(三月): 상복은 자취복과 같고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 입는 기간은 3개월이다. 주로 죽은 이의 현(玄, 고손자)손자가 입는다.
- (7) 대공 9월(大功九月): 상복은 굵은 삼베로 짓고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 입는 기간은 9개월이다. 주로 죽은 이의 4촌 형제자매가 입는다.
- (8) 소공 5월(小功五月): 상복은 보통삼베로 짓고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 입는 기간은 5개월이다. 주로 죽은 이의 종손자 당질(從姪) 6촌 형제자매가 입는다.
- (9) 시마 3월(緦麻三月): 상복은 고운 삼베로 짓고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 입는 기간은 3개월이다. 주로 죽은 이의 사위 재당질 8촌 형제자매 이종 내·외종이 입는다.

4. 현대 상복의 제도[服制]

상복이란 죽은 이를 기리며 애도해 근신하는 근친들이 일정기간 입는 옷을 말한다.

고례(古禮)의 복제는 상복의 재질과 봉제 방법에 따라 5복이 있었고 그것을 입는 기간에 따라 9복으로 나뉘어 지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 생활에는 적합하지 못해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오래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고례의 정신을 살리면서 구하기 쉬운 재질과 실용성 있는 디자인과 이해하기 쉬운 명칭과 합리적인 입는 기간들을 고려해 예시하기로 한다.

가. 상복의 기본제도

- (1) 옛날에는 상중예복으로 삼베로 지은 제복을 입었으나, 여기에서는 평소에도 입을 수 있고 실용성 있

는 백색 한복 정장으로 한다.

- (2) 옛날에는 굴건(屈巾)을 썼으나, 여기에서는 건(巾)만 쓰기로 한다.
- (3) 옛날에는 가장 긴 상복을 입는 기간을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 데 3년이 걸린다면 24개월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춘하추동(春夏秋冬) 4계절을 모두 겪는 4계절(12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 (4) 만일 백색 한복을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면 차선으로 흑색 양복 양장을 입는다.
- (5) 흑색 양복도 갖추기가 어려우면 현란하지 않은 평상복으로 한다.

나. 상복의 명칭과 기간

1) 중대복(重大服):

- (1) 죽은 이의 배우자, 주상, 주부, 부모, 아들, 며느리, 딸, 사위(죽은 이와 그 배우자의 존비속 1촌과 그 배우자)가 4계절(12개월)을 입는다.
- (2) 중대복의 예복은 남자의 경우 백색 한복 정장에 황색(삼베)건을 쓰고, 여자는 백색 한복 정장에 황색(삼베) 머리쓰개(蓋頭)를 쓴다.
- (3) 만일 부득이 흑색 양복 양장이나 평상복을 입을 때도 남자는 황색건, 여자는 황색 머리쓰개를 쓴다.
- (4) 예복 아닌 평상복으로는 현란하지 않은 한복이나 양복·양장을 입는다.

2) 대복(大服):

- (1) 죽은 이와 그 배우자의 조부모와 형제자매 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죽은 이의 존비속 2촌과 동향 2촌) 및 그 배우자가 3계절(9개월)을 입는다.
- (2) 대복의 예복은 남자의 경우 백색 한복 정장에 백색(무명, 모시)건을 쓰고 여자는 백색 한복 정장에 백색 머리쓰개(蓋頭)를 쓴다.
- (3) 만일 부득이 흑색 양복이나 평상복을 입을 때도 남자는 백색 건, 여자는 백색 머리쓰개를 쓴다.
- (4) 예복 아닌 평상복으로는 현란하지 않은 한복이나 양복·양장을 입는다.

3) 중복(中服): (1) 죽은 이와 그 배우자의 3촌 존속과 3촌 비속 및 그 배우자가 2계절(6개월)을 입는다.

- (2) 중복의 예복은 남녀 모두가 백색 한복 정장에 왼팔에 황색(삼베) 완장을 두른다.
- (3) 만일 부득이 양복 양장을 입을 때도 황색 완장을 두른다.
- (4) 예복이 아닌 평상시 복장은 현란하지 않은 통상복으로 입는다.

4) 소복(小服):

- (1) 죽은 이와 그 배우자의 4촌 존속과 4촌 비속 4촌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가 1계절(3개월)을 입는다.
- (2) 소복의 예복은 남녀 모두가 백색 한복 정장에 왼팔에 백색(무명) 완장을 두른다.
- (3) 만일 부득이 양복 양장을 입을 때도 백색 완장을 두른다.
- (4) 예복이 아닌 평상시의 복장은 현란하지 않은 옷을 입는다.

5) 경복(輕服):

- (1) 죽은 이와 그 배우자의 4촌이 넘는 8촌 이내 존비속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는 장례 후 첫 휴일까지 입고, 기타 죽은 이를 애도하는 사람(제자, 친구, 동료)은 누구든지 장례가 끝날 때까지 입을 수 있다.
- (2) 경복의 예복은 남녀 모두가 백색 한복 정장에 왼팔에 흑색 완장을 두른다.
- (3) 만일 백색 한복이 아닌 다른 옷을 입었을 때도 흑색 완장을 두른다.
- (4) 예복이 아니라도 현란한 옷은 입지 않는다.

※ 생각하건대: 고례에는 상복을 입은 것을 보면 누구의 복을 입었는지 분간이 되어 인사하기에도 편리했는데 요사이는 그렇지 못해 불합리하다. 위와 같이 5단계로 상복을 입으면 고례의 5복과 같아 합리적이다. 중대복과 대복은 머리에 건과 머리쓰개를 쓰게한 것은 2촌까지의 상을 당하면 지극히 슬프고 하늘을 볼 수 없는 중죄인이라는 고례의 정신을 그대로 이은 것이다.

5. 현대의 상장례 절차

현대의 상장례는 병·의원에서 운명하는 경우가 많고 장례도 장례식장에서 치르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 그렇더라도 자손이나 유족들이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상장례의 기본정신

상장례는 사람의 죽음을 맞고 그 주검을 갈무리해 장사지내며 근친들이 일정기간 슬픔을 다해 죽은 이를 기리는 의식 절차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생활 여건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옛날과 현대가 다를 것이 없다.

- (1) 엄숙하고 경건하게 죽음을 맞는다.
- (2) 죽은 이에 대한 마지막 모심이다. 슬픔을 극진히 하며 힘을 다해 장례를 치른다.
- (3) 특히 죽은 이의 자손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은혜를 마음에 새겨 근본에 보답하는 자세로 근신하며 기린다.
- (4) 모든 절차는 경제적 여건과 생업의 사정에 따라 사람마다 한결같을 수는 없으나,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이며 표본이 될 수 있게 제도를 예시한다.

[1] 질병 천거정침(疾病 遷居正寢):

- (1) 사람이 위독하면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나 가능하면 자기의 집 평소 자기가 쓰던 방에 모신다. 머리가 동쪽으로 가게 눕힌다. 해뜨는 동쪽의 생기를 마시게 하기 위함이다.
- (2) 자기가 평소에 살던 낮익은 곳에서 죽음을 맞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불행한 죽음을 객사(客死)라 했다.
- (3) 환자가 보고 싶어 할 사람과 환자를 보아야 할 사람에게 연락한다.
- (4) 환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가족이 항상 곁을 지키되 조용하게 한다.

- (5) 집의 안팎을 정돈하고 만일의 경우 숨졌을 때 알려야 할 곳을 기록해 정리하며 가족들이 하는 일도 상을 당할 것에 대비해 준비한다.
- (6) 환자의 마지막 유언(遺言)을 잘 들으며 유서가 있으면 쟁긴다.
- (7) 환자의 더러워진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다.
- (8) 가능하면 의사가 환자의 곁을 지키게 하고 아니면 환자의 입이나 코 위에 탈지면이나 새솜을 얇게 펴서 올려놓아 숨지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병원에서도 필요하다)
- (9) 자손과 근친들이 환자 곁에서 엄숙하게 지킨다.

[2] 수시(收屍) :

- (1) 주검을 반듯하게 갈무리하는 절차이다.
 - (2) 남자 주검은 남자 근친이 하고 여자 주검은 여자 근친이 한다.
 - (3) 수시의 시기는 죽은 때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후가 좋다. 너무 늦으면 안 된다.
 - (4) 눈을 쓸어내려 잠자듯이 감긴다.
 - (5) 주검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 다음 머리가 남쪽으로 가게 방의 한쪽에 반듯하게 놓는다.
 - (6) 두 발끝을 모아 백지나 붕대로 묶고, 무릎을 펴서 붕대나 백지로 묶고, 두 손을 배 위로 모아 흉사시의 공수를 시켜 붕대나 백지로 묶고, 머리를 반듯하게 유지시키고, 입에는 젓가락 등에 솜을 말아 물려서 오무러지지 않게 하고, 솜으로 귀를 막고 가제로 코와 입 위를 덮어 곤충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다음 홀이불로 얼굴까지 덮는다.
- ※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도 시체를 냉동실로 옮기기 전에 가족들이 시체를 깨끗하게 씻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시체를 반듯하게 유지시키고, 이불이나 홀이불도 깨끗한 것으로 시신을 감싸 놓는 것이 좋다.

[3] 입주상·주부(立主喪·主婦) :

- (1) 주상은 상의 바깥주인이고 주부는 안주인이다.
- (2) 주상은 죽은 이가 속한 집의 가장이 되고, 가장이 죽으면 가장을 이어 받을 사람(장자 또는 장자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으면 장손)이 된다.
- (3) 주부는 원칙적으로 주상의 아내가 된다. 남편인 가장이 죽으면 미망인이 삼우제까지 주부를 하고 삼우제 후에 주상의 아내에게 물려준다.

[4] 설 호상소(設護喪所) :

- (1) 호상소란 주상과 주부가 슬픔 때문에 상을 치르는 일을 직접 관리할 수 없으므로 주상과 주부를 대신해 상을 치르는 사무소이다.
- (2) 호상소에는 다음과 같은 인원을 둔다.

- ① 호상(護喪): 주상을 대신해 상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죽은 이나 주상과 잘 알고 예절을 알면서 상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맡는다.
 - ② 사서(司書): 상가(喪家)의 각종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사무원이다. 주상의 친구나 상복을 입지 않는 친척이 맡는다.
 - ③ 사회(司貨): 상가의 재물을 관리하는 경리원이다. 주상의 친구나 상복을 입지 않는 친척이 맡는다.
 - ④ 집행(執禮): 각종 축문을 작성하고 읽으며, 의식 절차를 진행하는 사회자다. 예절을 잘 아는 사람이 맡는다.
 - ⑤ 집사(執事): 의식 절차를 행하는데 협력하고 집행하는 사람이다. 예절을 잘 아는 사람이 맡는다.
 - ⑥ 안내(案内): 손님을 인도하고 대접하는 사람이다. 젊은 남녀들이 맡는다.
 - ⑦ 잡역(雜役): 상가의 잡다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다.
- (3) 호상소의 인원은 모두 호상의 명을 받아 일한다.
 - (4) 호상소는 집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들르기 쉬우면서도 주상과의 연락이 수월한 곳에 설치한다.
 - (5) 호상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책(帳冊)과 서류를 비치한다.
 - ① 조객록·조위록(弔客錄·弔慰錄) 또는 조문록(弔問錄): 죽은 이가 남자이면 손님이 죽은 이에게 인사(弔喪)하고 주상에게도 인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객록을 비치하고, 죽은 이가 여자이면 손님이 주상만을 위문(問喪)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위록을 비치하여 손님을 기록한다. 그러나 현대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조문록을 준비한다.
 - ② 부의록(賻儀錄): 상가를 돕기 위해 물건이나 돈을 부조하는 사람과 품명 수량 금액 등을 기록한다.
 - ③ 금전출납장(金錢出納帳): 현금이나 수표 등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한다.
 - ④ 물품수불부(物品受拂簿): 모든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한다.
 - ⑤ 축철(祝綴): 상장례 중에 읽어야 하는 모든 축문을 써서 책으로 맨 것이다.
 - ⑥ 부고발송 인명부(訃告發送人名簿): 부고를 보낸 내용을 기록한다. 부고의 중복 발송이나 누락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
 - ⑦ 메모책 등 기타 필요한 문서들을 비치한다.

[5] 역복·소식(易服·素食) :

- (1) 주상, 주부 이하 근친들은 화려한 화장을 지우고 액세서리를 떼며 옷을 단조롭게 바꾸어 입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 (2) 고례에는 불식(不食)이라 해서 장례를 치를 때까지 먹지 않았으나 현대는 그렇지 못하고 술이나 고기 등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 (3) 남자 자손이 한복에 두루마기를 입을 때는 아버지의 상에는 왼쪽 소매, 어머니의 상에는 오른쪽 소매에 팔을 꿰지 않는다. 이것을 삼임이라 했다.

※ 장례식장에서 복인들이 상복을 입기 전에는 한복의 경우 옥색 한복이 좋다.

[6] 수의봉재(壽衣 縫裁):

(1) 수의의 재질은 옛날에 비단이던 명주 제품과 가장 질긴 삼베를 썼던 것을 이유로 화학섬유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순 본견제품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면 화학섬유도 나쁠 것이 없다. 다만 화학섬유는 정전기가 일어나는 폐단이 있으므로 살에 닿는 부분은 명주나 무명 삼베 등 천연섬유가 좋을 것이다.

(2) 수의는 겹으로 지으며, 산사람의 옷과 반대로 왼쪽 셔를 먼저 여미도록 짓는다.

(生者 → 吉服 → 右衽, 死者 → 凶服 → 左衽)

(3) 얼굴과 머리를 감싸는 목목과 복두에는 솜을 두고, 이불은 겹으로 해서 시체를 여며서 쌀 만큼의 크기여야 한다.

[7] 부고(訃告):

현대도 호상의 명의로 부고를 내는 것은 고례와 같으나 부고를 주상, 주부이하 근친의 친지에게도 보내므로 성인이 되어 사회활동을 하는 근친을 아울러 쓰고 발인 일시와 발인 장소 및 장지도 쓴다.

“訃告”

○○高等學校校長◎ 敬培◎ 大人◎ ○○郡守 金海金達柱公◎ 以五月十五日◎ 不意交通事故◎ 不幸於五月二十日午後三時◎ 棄世于自宅◎ 茲以 訃告

發鞠日時：	年	月	日	時	
發鞠場所：	道	群	面	里	自宅
葬 地：	道	群	面	里	後麓

主喪◎ 嗣子◎	○○
主婦◎ 夫人(室人)◎	○○○
嗣婦◎	○○○
子◎	○○
婦◎	○○○
女◎	○○
婿◎	○○○
孫	○○
孫婦	○○○
孫女	○○
孫婿	○○○

檀君紀元四三十年 五月 二十日◎

○○○ 座下

護喪 李吉純 上

※부고 중에 죽은 이의 살아 있는 부인을 ‘未亡人’이라 쓰면 실례이다. 부고는 미망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호상이 내는 것인데 ‘미망인’이란 ‘아직 안 죽은 사람’이란 뜻이므로 욕이 될 수도 있다. 미망인 스스로는 ‘미망인’이라 할 수 있다.

부고 끝의 일자는 죽은 다음날 부고를 내더라도 죽은 날로 써야 한다. 여기에 부고를 내는 날짜를 안 쓰면 본문 중 복인들이 부고 발송인이 되고, 따라서 이름위에 쓴 친족 관계가 부고를 받는 사람과의 관계가 되어 망발이 된다.(우리나라의 편지 서식상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위에 쓰는 관계는 편지를 받는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8] 설 영좌·상차(設靈座·喪次) :

(1) 영좌는 손님이 죽은 이에게 슬픔을 나타내는 장소이고, 상차는 주상 이하 상제들이 있는 장소이다. 현대는 영좌와 상차를 붙여서 같은 장소에 설치한다. 고례에는 염습 성복례 후에 설치했으나 현대는 염습 전에도 조문을 받아야 하므로 일찍 배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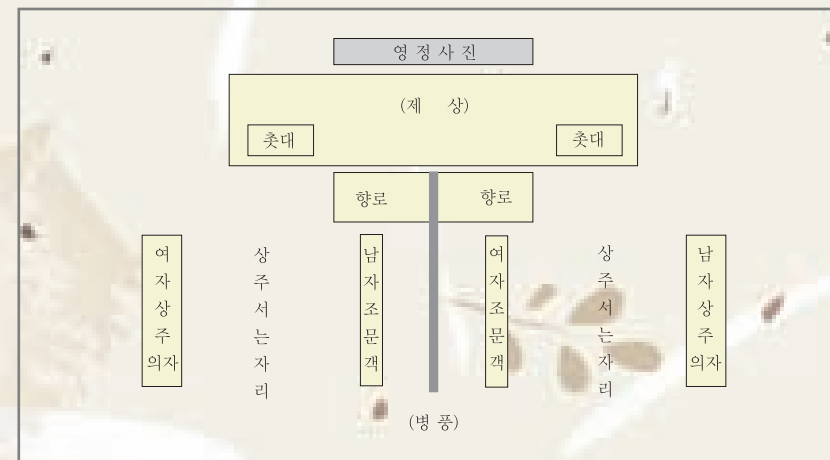
(2) 영좌와 상차의 설치 장소는 집이 좁으면 시신이 있는 방에 차리고 집이 넓으면 시신의 방에 가까운 곳에 차린다.

(3) 가능하면 남자 손님을 받는 곳과 여자 손님을 받는 곳, 두 군데를 차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일 기존 시설이 영좌를 1개소밖에 더 차릴 수 없으면 분향하는 장소 앞의 조문객의 조문 장소에 병풍을 쳐서 남녀의 조문석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

(4) 영정 사진의 검은 리본은 성복례를 한 뒤에 걸친다. 성복 전후의 조문방법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성복여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5) 현대의 영좌는 상주가 의자에 앉도록 입식(立式)으로 차리고, 조문객이 영좌에 조문하고, 상주에게 문상할 때에 전통배례가 아닌 경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사이 여자가 남자의 절을 하고 남자도 절을 바르게 못하기 때문에 영좌를 입식으로 개선하여 합리화해야 한다.(이때 상주의 의자는 편한 것이 아니고 일반의자가 좋다.)

(6) 요즈음 장례식장의 영좌는 남녀 구분이 되지 않아 불편이 많다. 영좌 향안 앞에 병풍을 쳐서 남자 상주는 병풍의 동쪽에서 남자 조문객을 맞고, 여자상주는 병풍의 서쪽에서 여자 조문객을 맞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편리하다.



[9] 성복례(成服禮) :

- (1) 성복제가 아니고 성복례이다. 근친들이 남의 조문인사를 받기 전에 복인들 간에 먼저 조문인사를 하는 것이다. 성복례를 할 때는 중간의 병풍을 치지 않는다.
- (2) 집례가 분향하고 술을 영정 앞에 올리고 곁절을 한다. 상주들은 절하지 않는다.
- (3) 남자 복인은 동쪽, 여자 복인은 서쪽에 위치한다. 윗대 어른이 북쪽에서 남향해 선다. 아랫대 사람들이 윗대 어른에게 큰절을 곁절로 한다. 어른은 답배하지 않는다.
- (4) 다음에는 남녀가 마주 보고 선다. 남녀가 함께 평절로 맞절을 한다.(옛날에는 곡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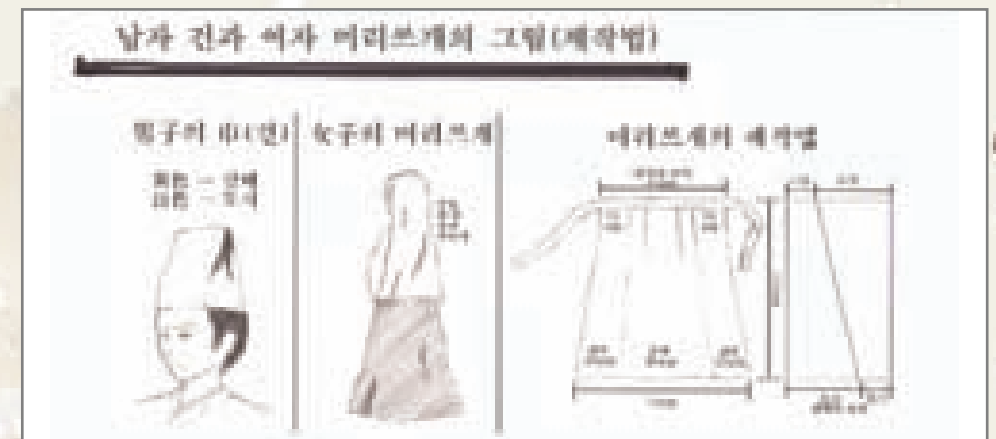
[10] 조상·문상(弔喪·問喪) :

- (1) 고례에는 주상, 주부 이하 복인들이 정해진 상복을 입고 서로 조문하는 성복례(成服禮)를 치르기 전에는 외부 손님의 조상이나 문상을 받지 않았으나 근래에는 죽음을 알면 즉시 조상과 문상을 한다.
- (2) 고례의 조상과 문상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조상(弔喪): 죽음을 슬퍼한다는 뜻이다. 죽은 이가 남자이면 손님이 영좌 앞에서 죽은 이에게 슬픔을 나타내기 때문에 남자가 죽은 상에 인사하는 것을 조상이라 한다.(弔客錄에 기록한다)
 - ② 문상(問喪): 근친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묻는다는 뜻이다. 죽은 이가 여자이면 손님이 죽은 이에게는 인사하지 않고 주상, 주부 이하 복인에게만 죽음을 위문하기 때문에 여자가 죽은 상에 인사하는 것을 문상이라 한다.(弔慰錄에 기록한다)
 - ③ 성복례를 하기 전에는 주상, 주부 이하 복인들이 슬픔으로 경황이 없을 것이므로 조상·조문을 하지 않고 호상소에만 인사한다.
- (3) 그러나 현대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죽음을 알면 즉시 조상도 하고 문상도 한다. 조상과 문상을 합해서 슬픔을 나타내고 위문도 한다는 뜻으로 조문(弔問)이라 한다.(상가에는 弔問錄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4) 조문의 방법:
 - ① 손님이 상가에 도착하면 먼저 호상소로 가서 조문록에 자기의 주소 성명을 기록한다. 호상소 사람이 기록해도 좋다.
 - ② 호상소의 사람은 손님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영좌 앞으로 안내한다.
 - ③ 주상, 주부 이하 복인들이 일어나서 흉사시의 공수를 하고 슬픔을 나타낸다.
 - ④ 손님은 향안 앞으로 가서 향을 1번이나 3번 사르고, 흉사시의 공수를 하고 서서 잠시 죽은 이를 추모하며 슬픔을 나타낸다
 - ⑤ 영좌에 꽃을 올리도록 준비되어 있으면 꽃송이가 영정 쪽으로 가게 올려 놓는다. 죽은 이의 영전에 꽃향기를 올리는 것이지 꽃을 들고 있으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다. 영전에 꽃을 올리는 것은 서양의 풍속인데 유럽에서는 꽃송이가 영정을 향하도록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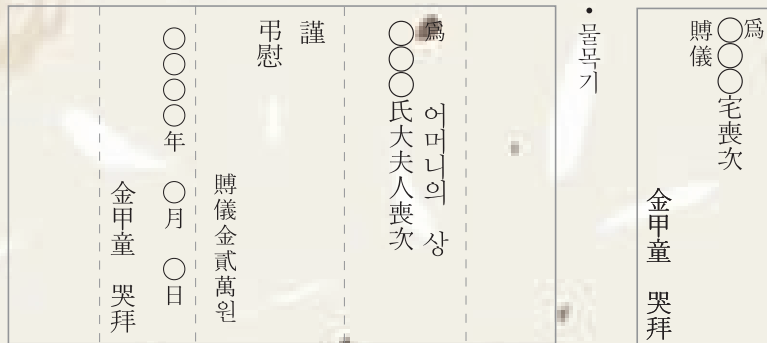
- ⑥ 영좌가 입식(立式, ·상주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으로 설치되었으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한 번 경례하고 좌식(座式 ·상주가 바닥에 앉아있는 경우)으로 되어 있으면 전통배례로 두 번(여자는 4번) 절한다. 죽은 이가 평소에도 절을 하지 않을 정도로 아랫사람이면 절을 하지 않는다. 아랫사람이 죽었다고 윗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슬퍼만하고 절을 하지 않는 것을 곡이불배(哭而不拜)라 한다.
 - ⑦ 약간 뒤로 물러나서 상주가 있는 쪽을 향해 선다.
 - ⑧ 조문객과 상주 중 아랫사람이 먼저 경례 또는 절을 하면 상대방이 맞절 또는 답배를 한다. 이때도 평소 절을 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쪽에서는 절하지 않고 아랫사람 쪽에서만 절한다.
 - ⑨ 좌식장소면 꿇어앉고 입식장소면 공손한 자세로 서서 손님이 먼저 인사한다.
 - ⑩ 고례에는 죽은 이와 복인과의 관계에 따라 인사말이 달랐으나 내용은 모두 ‘슬픔을 위문’ 하는 말이 었다. 그러므로 현대에는 누가 죽었든 어렵지 않게 “얼마나 슬프십니까?”라고 인사하면 된다.
 - ⑪ 복인이 대답하는 말도 고례에는 경우에 따라 달랐으나 내용은 한결같이 ‘슬프다’ 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현대에는 “오직 슬픔 따름입니다.”라고 대답하면 된다.
- (5) 다시 호상소에 가서 준비된 부조금품(扶助金品 · 賻儀)을 접수시키고, 호상소에서는 그 내용을 부의록(賻儀錄)에 기록한다.
 - (6) 손님은 호상에게 수고한다는 인사를 하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없습니까?”라고 협조할 일을 묻는다. 상가의 일은 서로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 (7) 대접하는 다과가 있으면 간단히 들고 일어난다.
 - (8) 상가의 화제는 죽은 이를 추모하거나 자손들의 효성을 칭송하거나 장례 절차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절대로 잡담이나 큰소리, 노래, 춤 등으로 무례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11] 부의(賻儀) :

- (1) 사람의 죽음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즐지에 상을 당한 상가를 돕기 위해 상장 절차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돈을 자기의 형편에 맞게 부조하는 것이 우리의 미풍양속이고 그것을 부의라 한다.



- (2) 부의는 많고 적음보다 정성이 앞서야 하므로 깎듯한 예를 차려야 한다.
- (3) 물건이나 돈을 불쑥 내놓기보다 일정한 격식을 차리는데 그것이 물목기(物目記)이다.
물품이면 부의품 麻布壹疋 등 사실대로 품명과 수량을 쓴다.
- (4) 부의금품은 주상이나 복인에게 영좌 앞에서 주지 않고 반드시 호상소에 내놓아야 한다.



[12] 발인(發靛) · 견전(遣奠) :

- (1) 영구차 앞에 영좌를 설치하고 상을 차린다.
- (2) 주상 이하 모두가 정한 자리에 선다.
- (3) 집례가 술을 올리고, 상주의 오른쪽(東쪽)에서 축문을 읽는다. .

• 견전 고사 한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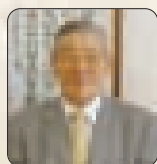
“靈?既駕 往則幽宅 載陳遺禮 永訣終天”(영이기가 왕즉유택 대진견례 영결중천)

• 견전 고사 한글 서식

“혼령을 이미 영구차에 모셨사오니 이제 가오시면 영면하실 묘지이옵나이다. 영원히 떠나시는 예를 올리오니 이제 가시면 영원하시나이다.”

- (4) 영구를 따라가지 않고 집에 남는 사람들만 슬픔을 나타내고 절을 한다.

※ 관을 영구차에 모실 때는 다리가 앞으로 가게 해야 한다. 고례에는 머리가 앞으로 가게 모셨는데 그렇게 하면 영구차가 앞으로 가는 탄력으로 체액이 뒤로 쏠려 체외로 흐르게 된다. 또 머리가 먼저 가면 뒷걸음질 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 ☹



김득중 한국전례연구원장

경상도 아리랑의 가락 속으로



아라리가 쓰라리가 영천인가 /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 주소 / 아주까리 동배야 더 많이 열려라 / 산골집 큰애기 신바람 난다 / 울넘어 담넘어 님 숨겨두고 / 호박잎 난들 난들 날 속였소 / 멀구야 다래야 더 많이 열려라

위의 노래는 2000 남북회담 때 평양에서 울려 퍼진 영천 아리랑이다. 이를 계기로 경북 영천에서는 2005년부터 제1회 영천아리랑축제로 발전시켜 도내의 큰 문화행사로 펼쳐나가고 있다. 시안미술관에서는 ‘2007영천아리랑회화제’를 통해 전국적인 문화행사로 확대 실시, 영천의 위상을 국내외에 높이기도 했다. 영천아리랑은 과거 일제 때 영천지방에서 부르던 아리랑을 북간도로 떠났던 이주민들이 부르던 것, 이들이 다시 만주를 거쳐 이북으로 되돌아온 내력을 갖고 있는 아리랑이다. 과거 당시 영천지방은 교통의 요지로서 대구와 함께 물류의 중심지였다 밀양과 더불어 농산물의 곡창지대로도 유명하여 ‘밀양’과 ‘영천’은 쌍벽을 이루는 아리랑이었다고 했다(영천의 전통문화, 영천시) 최근에는 영천사과대신 포도를 재배하고 있다. 영천에는 유형문화재가 많은 것도 큰 자산임엔 분명하다. 곳곳에 값진 문화재급 유산이 많다. 그러나 시 재정이 약한 탓으로 문화재가 퇴색되어 가는 느낌이다. 골격이 잘생긴 영천향교는 건물보수를 못해 진흙담마저 갈라지는 아쉬움을 보인다. 옛날의 활기찼던 영천 모습이 그림다.



영천아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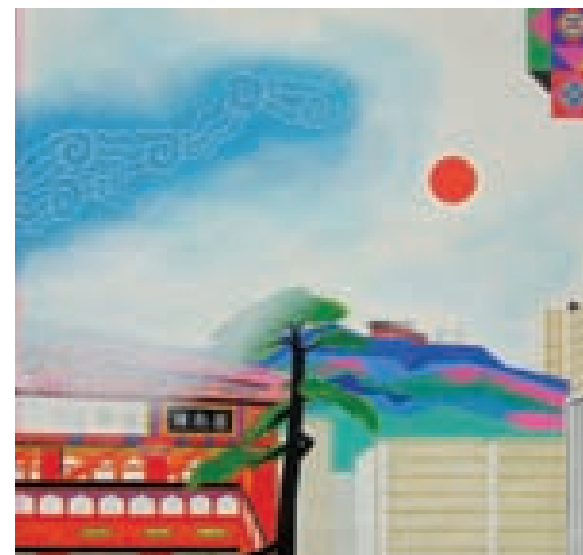


밀양은 영천보다 아리랑이 더 알려진 고장이다. 유명한 표충사와 영남루, 사명대사의 유적지도 밀양에 있다. 그리고 밀양아리랑은 계속 국민들에게 불려지고 있다. 금년이 제 51회째 밀양아리랑 대축제가 열린다. 축제에는 아리랑마라톤대회, 밀양아리랑의 밤, 아리랑가요제, 밀양아리랑 전국 민요경창대회 등이 개최되면서 전국의 관광객을 모으기도 한다. 밀양 아리랑 한 소절만이라도 들어본다.

아리당닥궁 쓰리 당닥궁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어절시고 잘 넘어 간다/ 날좀 보소오 날좀 보소오 날 쪼금 보소오/ 동지선달 꽃 본듯이 날 쪼금 보소/ 생략/ 정든 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뻥긋...

대구는 축제가 많은 도시다. 약령시 축제를 비롯, 동성로 축제, 대구오페라 축제, 과학축제, 갯바위축제, 팔공산 단풍축제, 북구문화예술제등 20여행사가 계절별로 있다. 약령축제는 350여년을 이어온 대구의 대표적 전통문화 관광축제로 매년 5월 약전골목에서 벌어진다. 성주도 옛날부터 수박과 참외 등 과일 맛이 유명하기로 이름 높은 곳이다.

국내 최대의 항구도시인 부산은 문화, 금융경제, 물류, 관광 등 산업이 활동하는 역동적 도시다. 토요일 상설민속놀이마당이 분기별로 있고, 음악 연극 영화 공연 등이 부산문화회관을 비롯해 금정문화회관을 속속도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과 시내의 소극장 예술관에서 끊임없이 진행된다. 부산시립미술관, 용두산 미술



밀양아리랑



대구아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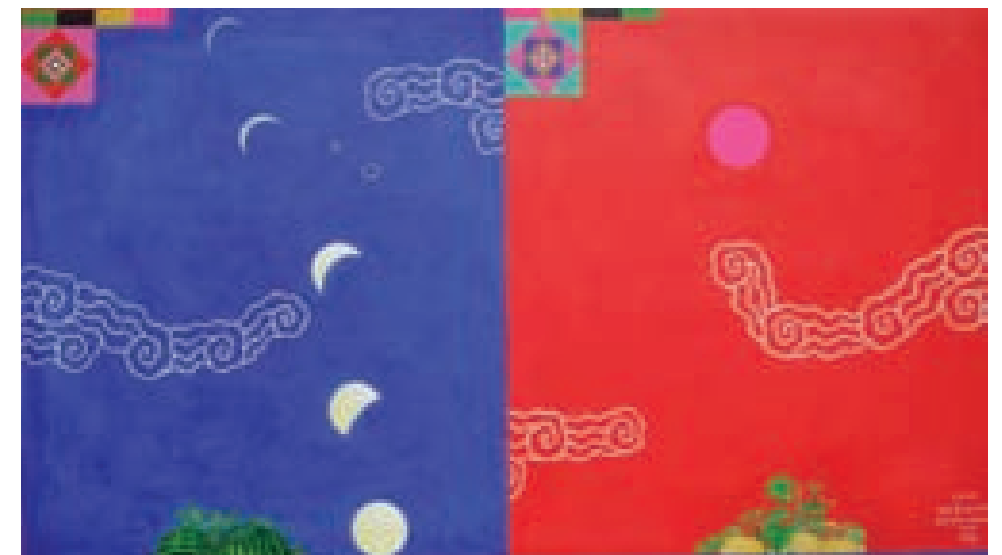
관 달맞이 갤러리 등 20여 미술관과, 부산극장신관 프리미어시네마, 해운대 등도 영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편이다. 자연사 박물관 역사관 민속박물관과 더불어 구역별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문화학교' 민요반 운영도 한몫 하고 있다.

물류는 울산을 빼 놓을 수가 없다. 국가기간산업이 많아 포항과 잘 어울리는 도시다. 울산의 암각화는 고대의 흔적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 대중가요로 우리의 심금을 울렸던 고복수의 고향도 울산이다. 처용문화제와 간절곶 일출 12경이 유명하다.

독도는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산1-37. 청정수역으로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므로 어장이 풍성하다. 오징어는 물론, 여러 해물이 풍부하면서도 군사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섬이다. 지난 DJ 정권이 일본과의 신어업협정(1998.11.28)때 영유권을 공동으로 양보한 뒤부터 일본이 자기 땅으로 주장한 근거가 됐다.

경주의 남산은 그야말로 보물 덩어리다. 시내의 고분도 태고의 위용을 자랑한다. 세계적 문화유산인 석굴암과 불국사. 동해의 문무대왕릉, 감은사터, 토함산의 자연휴양림, 교동법주, 황남뽕까지 역사를 지닌 도시다. 경주문화원의 요일별로 실시하는 한국무용 민요 등도 월~토요일 까지 꼭 채워있다. 경주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여러 문화원에서도 비슷한 전공별 강습반이 있다.

다음은 북부지역인 청송과 예천 상주 문경 울진 봉화를 가본다. 우선 예천아리랑을 보자.



성주아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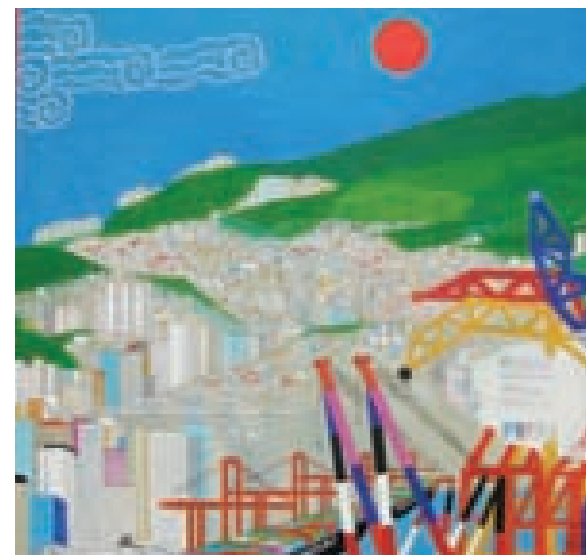
아롱아롱 아롱아롱 앓지마라/ 니 앓는 속내를 내가 안다/ 아리랑고개서 알을 배어/ 몸실령 고개서 몸을 풀어/ 니 잘났나 내 잘났나 도투지마라/ 은하 백룡 은하 은전 지 잘났다/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요(예천아리랑, 신나라p58)

다음은 봉화 아리랑을 또 본다. 봉화와 문경 울진은 산 계곡이 비슷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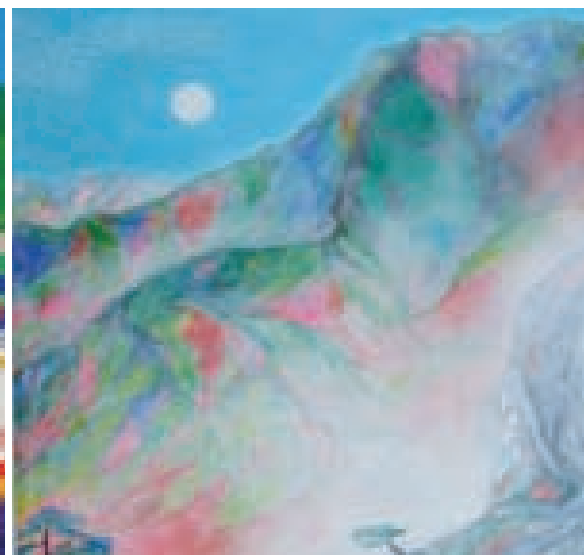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 고개를 넘어가면 내 고향이 저기건만/ 어이 하여서 못 가는고/ 아리랑 아리랑 아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그리운 고향 산천 언제 돌아가서/ 이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 볼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봉화아리랑, 신나라, p123)

봉화군은 송이버섯으로 유명하다. 한우의 참 맛이 고가로 평가되는 곳이 '봉화 한우'다. 이곳 춘양면의 한우는 한약을 먹여 키우는 최고급의 육질이다. 춘양면 일대는 보기 좋은 소나무 '춘양목'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여기서 자란 청정 대추 사과등도 상품이다.

울진과 영덕은 해안을 끼고 있어서 두 지역 모두 유명한 '대게'로 많은 관광객을 부른다. 요즘 경제가 안 좋아 울진과 영덕의 대게도 판매영향이 있을지 염려가 된다.



부산아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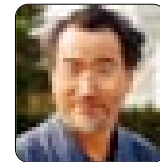


경주아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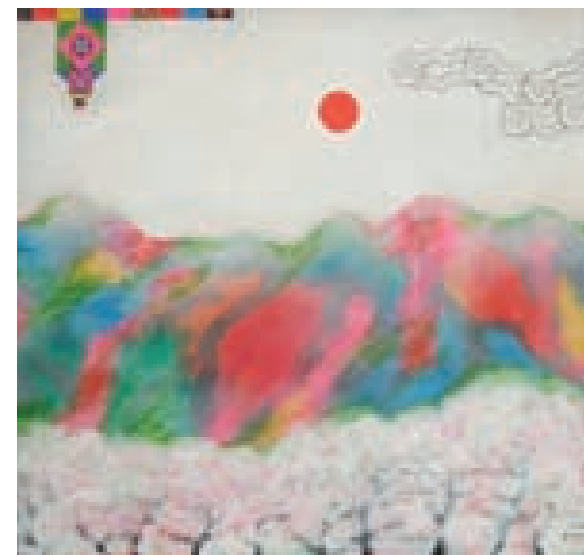


청송도 주왕산을 끼고 질 좋은 사과가 나온다. 청송문화원 주최 수달래제가 실시된다. 상주도 상주문화원 주최로 전국민요경창대회를 10년 전부터 매년 가을에 한다. 권위 있는 전통민요 승계와 발전을 위해 신경을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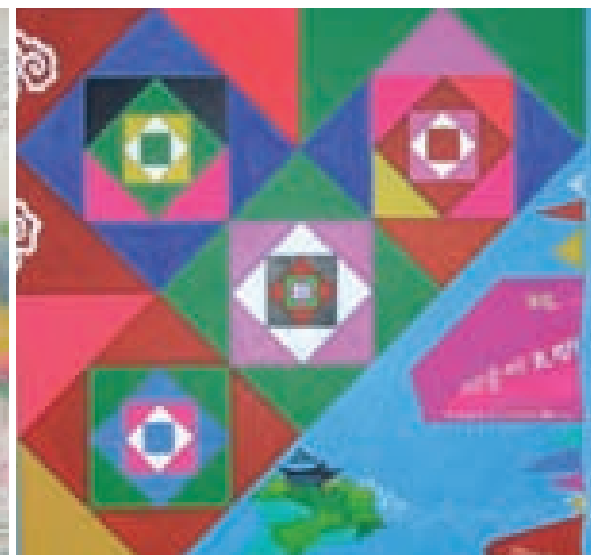
경상도의 남부 쪽 창원 마산 진주 사천 통영도 아름다운 절경의 자연환경과 문화재가 풍부한 지역이다. 전남 구례와 맞닿고 있는 하동으로 간다. 하동은 오래전부터 화개장터와 쌍계사를 잇는 벚꽃 백리길을 빼 놓을 수가 없다. 경치 좋고 물 좋은 이곳은 시인 묵객들이 많이 배출되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섬진강 주변을 즐겨 찾는다. 특히 소설 토지로 알려진 평사리는 관광객까지 몰려오는 명소가 되고 있다. 하동 아랫동네는 사천시와 진주로 이어진다. 진주는 수많은 역사적 사연을 간직한 고장으로, 남강의 '논개'를 기억케 하고 '청춘 소야곡'을 남긴 가수 남인수의 고향이기도 하다. ☼



김정 서양화가



화개장터아리랑



진주아리랑

한국문화원연합회 '2008 제3차 이사회'



김이기 사무총장 임명동의(중임)

한국문화원연합회는 7월 3일 대전 유성 문화원에서 '2008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무총장(김이기) 임명동의의 건과 연합회장 이취임식(7월 11일 오전 11시,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2층 크리스탈 볼룸)을 갖기로 했다.

지난 2005년 7월 1일부터 3년 임기로 한국문화원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해 온 김이기 총장은 정관 제 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중임이 의결됨에 따라 2008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의 임기로 연합회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권용태 전임회장 발전기금 기탁

한편 이날 이사회 개최벽두에 최종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권용태 전임 회장으로부터 연합회 발전기금으로 적립해 달라고 하면서 1천만 원을 보내왔다고 보고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전주시 '2008 실버문화축제' 공동개최 협약 체결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축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전주시가 '2008 실버문화축제'의 공동개최 협약을 지난 8월 11일 전주 교동아트센터에서 가졌다.

이날 협약에서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과 송하진 전주시장은 양 기관의 협조관계 구축을 통해 축제에 대한 기획, 홍보, 운영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나간다는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월 5일엔 '2008 실버문화축제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추진위원회는 최종수, 송하진, 표재순 공동위원장 외 11인의 추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버문화축제'는 1, 2, 3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축제로서 2006년 첫 회 개최 이래로 전국 지방문화원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는 100개 문화원이 지역적 특색을 가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으로 참가하며, 이미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해 실버문화에 대한 기존 인식의 전환은 물론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전주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지회 - 김문수 지사 초청 경기도 문화원장 만찬간담회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지난 8월 11일 저녁 7시부터 3시간 동안 수원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종수 회장과 남선우 경기도지회장을 비롯하여 도내 문화원장을 초청한 가운데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종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이주여성과 국제결혼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문화원에서 개최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문화행사에 보다 많은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원장들의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가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힘써줄 것을 건의(화성 기봉서 원장)하였으며 이중무 장군 현양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묘역 주변 정비사업 등의 필요성(용인 이종민 원장)과 양평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 지원 요청(양평 장재찬 원장), 사무국장 인건비 등 사업활동비 지원(포천 이만구 원장), 문화원 차량지원(하남 양인석 원장), 남한산성 내 삼학사를 기리는 현절사역사공원 조성사업 지원(성남 한춘섭 원장/광주 이상복 원장/하남 양인석 원장), 안성 극정루 복원사업비 지원(안성 김태원 원장), 양주 온릉(조선 중종 원비 단경왕후 등) 문화해설사 배치 건의(양주 박성복 원장), 모락산성 백제토기 복원사업 필요성(의왕 이종훈 원장), 산본2동, 이조백자 발굴사업 지원(군포 송윤석 원장), 이천향교 망현산 5층석탑 되찾기운동 지원(이천 이상구 원장), 시흥 백자가마터 체험시설 설치(시흥 정상중 원장), 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도비 지원(의정부 조수기 원장), 금석문 탁본사업, 도비 지원(동두천 안민규 원장), 고강동 선사유적지 발굴사업 관리방안(부천 박형재 원장)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남선우 지회장은 문화원장 간담회를 년 2회 정도로 실시해 줄 것과 외국인 근로자 체험행사비 1,200만원의 증액 지원을 요청하였고, 오용원 평택원장은 폐교를 활용한 옷다리문화촌에 대한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실버학교 운영지원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으며, 이난우 여주원장은 여주 한글날기념식 등 사업비 지원에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시했다.

김문수 지사는 문화원장 초청간담회가 늦은 감이 있음을 표명하고 과거와 미래, 현재를 통합하는 정신 문화에 대한 리더가 문화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문화원의 힘으로서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악한 조건에서도 문화원장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와 함께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2008 지방문화원 실버문화학교 실무자워크숍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는 '2008 지방문화원 실버문화학교 실무자워크숍'이 6월 27, 28일 양일간 서울유스호텔에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추진단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년 실버문화학교 워크숍은 90여개 문화원 사무국장,

간사 및 실무자님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종수 회장의 인사말씀과 장상호 총무국장의 금년 사업 경과보고로 시작된 이번 워크숍은 한국마임협회의 조성진 회장의 특강, 12명의 성악가로 구성된 드림싱어즈의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총 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유형별 컨설팅을 통해 신규 사업시행 문화원을 비롯, 기존 시행문화원의 실버문화학교 중장기 발전방향과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보다 발전적인 실버문화학교의 모습이 기대된다.

실버랑 홈페이지 : <http://www.silverang.org> 담당자 이대균 주임, 정선영

대한민국관광문화진흥정책대상인 "한국문화진흥브랜드대상 수상"



남해문화원(원장 이호균)은 지난 8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08 한국문화진흥브랜드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관광문화평가원이 주최하고 스포츠조선이 후원하는 문화대상 시상은 남해문화원이 그동안 지역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향토사, 문화, 역사, 평생학습, 찾아가는 공연문화 정착 등 다양한 장르로

고객만족 프로그램 및 18개 교실의 문화학교 강좌개설로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했으며 향토사연구소, 남해군 결혼이주여성문화센터, 소외계층인 독거노인과 장애우 등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제공을 비롯하여 청소년을 위한 향토문화 체험 '우리의 뿌리' 찾기 및 고령화시대에 활기찬 노년을 위한 실버세대 맞춤형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박물관 남해예술단 및 군립합창단 창단, 운영 등 새로운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문화 창출과 창의력을 높이 평가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천혜의 자연비경을 갖춘 남해를 알리고 역사적 인물을 발굴하여 가치관을 확립해 오는데 앞장서온 이호균 원장은 역사 인물 현판을 건립하여 남해의 정체성을 되찾는 일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문화관광산업의 개발로 지역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문화 인프라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피력했다.

대전 중구문화원

2008호국백일장·사생대회



대전 중구문화원(원장 조성남)은 제53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위훈을 기리고 그 뜻을 널리 알려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 대한 민족의식 고취 및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고자 2008호국백일장·사생대회를 지난 6월 15일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국립대전현충원, KBS대전방송국, 한문연 대전시지회, 중도일보 등의 후원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가졌다. 6월 27일 문화원 시상식에서 대상에 김진아(중등부 산문부문 신일여중 2년), 서경윤(중등부 수채화부문 대전 두리중 3년), 박유나(고등부 수채화부문 대전예술고 3년) 학생이 국가보훈처장상을 수상하는 등 총 227명(금상 : 10명, 은상 : 20명, 동상 : 30명, 장려상 : 160명)이 수상하였으며 입상작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1주일간 중구문화원에서 전시되었다.

광주 북구문화원

제14회 무드리 가족사랑그리기·글쓰기대회



광주 북구문화원(원장 이종철)은 청소년들의 생각을 그림 및 글을 통해 담아 보게 함으로써 느낌을 바르게 표현하고 이해함은 물론, 예술을 통한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 여가선용과 바람직한 취미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그림그리기와 글쓰기대회를 가졌다.

지난 6월 14일에 있었던 '제14회 무드리* 가족사랑그리기·글쓰기대회'에서 그리기 대상에 이혜선(조대여중 2년) 양이 광주시교육감상을, 김다은(문흥중앙초 6년)양과 이민정(문흥중 3년) 양이 각각 최우수상으로 한문연 광주시지회장상을 수상했으며 김채은(문산초 6년)·김혜인(용봉초 4년)·임소정(문산중 2년) 양이 우수상으로 북구문화원장상을 받았다.

한편 글쓰기대회 대상에는 이수진(조대여고 2년) 양이 광주시교육감상을, 임경희(조대여중 2년)양이 한문연 광주시지회장상을 받았으며 오한솔(전남여상 2년)·김효진(문흥중 2년)·강화영(전남여상 3년) 양이 우수상으로 북구문화원장상을 받았다. 이 밖에도 그리기와 글쓰기에서 각각 5명의 장려상과 10명의佳作에게도 북구문화원장상이 주어졌다.

* 무드리의 어원 :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 때 광주를 '무진', '무진주' 또는 '노지()'라고도 했다고 되어 있다. 학자들은 이 시대의 '노지' '무진'이란 글자는 습지를 뜻하는 '무들(물들)'이었을 것으로 본다. 같은 발음의 토박이 땅이름으로 전해지는 동구 계림동과 북구 중흥동에 걸쳐 있던 경양방죽 들 이름을 '무드리'라고 했으며 무등산 북쪽 산기슭 마을인 충효동 일대는 '무들 밑들'이라고 했다. - 광주 북구지 중론편

포천문화원

전국 한시백일장 및 휘호대회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지난 7월 5일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제22회 반월문화제로 열린 바 있는 전국 한시백일장과 휘호대회에서 우수작품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전시회를 가졌다.

이보다 앞서 4월 말에 열렸던 백일장과 휘호대회 등 반월문화제에 많은 시민과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의 기반구축 및 창작 활동의 저변확대를 통한 포천시민의 화합계기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창작예술 표현을 통한 자질향상 등 창의적인 소질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조선 후기 실학파의 한 사람으로 사가시인(四家詩人)에 꼽힐 정도로 명문장가이기도 했던 척재 이서구(李書九) 선생 추모행사로 개최된 한시백일장에서는 전국 유림 및 한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시문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이날 장원에는 대구의 원중숙씨가 차지했으며 차상에는 서울 양천에 사는 정규창씨 외 1인이, 그리고 차하에는 경북 문경의 김진선씨 외 2인이 각각 차지하였다. 한편 휘호대회 일반부 대상에 엄문섭씨(한문), 최우수상에 오광석씨(한글), 이범중씨(한문), 허영희씨(문인화)가 차지했으며 학생부 최우수상에는 원동진군(한글)과 안태현군(한문)이 각각 수상하였다.

이밖에도 사생, 사진촬영 등 부문별로 나눠서 기량을 겨루었으며 특히 체육관 앞 광장에서는 투호, 도자기 공예, 페이스페인팅, 좋은 글 써주기, 전통목각판 시연 및 서각체험, 종이공예, 윷놀이, 제기차기, 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마당이 펼쳐져 축제의 흥을 돋구었다.

장흥문화원

제10회 장흥문예백일장 및 제6회 그림그리기대회



장흥문화원(원장 김기홍)은 6월 26일 오후 장흥문예회관에서 관내 각급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중·고교생 250여명을 대상으로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를 가졌다.

청소년 및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발표 기회를 넓혀주고, 창작의욕을 진작시켜 문림고를 장흥의 전통을 다지는 한편, 문화 예술 인재를 발굴 육성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다.

백일장의 경우 운문(2편 이상)과 산문(초등부 : 500~1000자, 중고등부 : 1500자~2000자 내외)으로 나누고, 그림은 4절지에 정물화와 풍경화로 각각 구분해서 대회를 치르고, 입상자는 3개월 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목포문화원

목포 골목길 답사



목포문화원(원장 김석철)은 지난 7월 19일 오후 2시부터 역사의 생생한 현장이자 삶의 애환이 서린 골목길을 시민들과 함께 둘러보는 목포 골목길 답사의 시간을 가졌다.

재개발과 도로개설 등으로 갈수록 사라져 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한 나머지 목포시민의 삶의 터전이면서 목포문화의 원류인 목포의 골목길을 시민들과 같이 답사하며 목포의 정체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골목길 답사를 정기적으로 갖기로 하였다.

개항과 함께 형성된 근대도시 목포에는 유달산과 낮은 언덕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골목길이 잘 발달되었으며 또 이곳은 목포시민들의 삶의 애환과 슬한 이야기들이 전해 오는 터전이자, 격동의 역사와 인물, 문화가 어우러진 살아 있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경주문화원

2008어린이 충효교실



경주문화원(원장 오해보)은 7월 23일부터 2일간 문화원 강당을 비롯하여 산내유스호텔에서 '2008 어린이충효교실'을 열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에게 오늘날의 충효의 의미와 올바른 가치관을 길러주기 위하여 4, 5, 6학년의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충효교실에서 오해보 원장은 특강을 통해 문화원이 하는 일과 전통문화 및 향토문화에 대해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화랑정신, 전통 연 만들기 및 탁본체험 행사를 갖고 난 다음 산내유스호텔로 장소를 옮겨 레크레이션 및 캠프파이어가 있었다.

다음날인 7월 24일 오전에는 웃음요가와 숲 생태체험 시간을 가졌으며 오후 시간에 물고기잡이 체험을 끝으로 이틀간의 체험 일정을 마쳤다.

문경문화원

제3기 향토사연구소 출범

문경문화원(원장 채대진)은 6월 26일 문화원에서 제3기 향토사연구소 출범식을 가졌다. 1980년대부터 향토사연구소를 설립하고 30여년간 21집의 향토사료집을 비롯해서 '문경지' '문경문화재대관' 등 향토사 종합집을 출간해 온 문경문화원은 이날 제2기 소장으로 퇴임한 고재하 전 소장은 고장의 미발굴 및 비지정문화재 106건 219점을 조사하고, 이를 일일이 5천분의 1지도에 표기하는 도면화 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이를 문화재대관으로 발간함으로써 당초 30점인 문경의 국가지정 문화재를 65점으로 지정받는데 기여하였으며 1998년 4월에는 고모산성 전체를 실측하고 축성방법이나 성곽의 특징, 성격 등을 규명했는가 하면 사라져가는 전통무형문화재 복원의 일환으로 경상감사 교인식을 복원하여 전승에 힘쓰기도 했다. 제3기 향토연구소는 김학모 전 산양면장을 소장으로 읍 면 동별 각 1명씩 14명과 문경시 학예연구사 4명, 전 소장을 비롯한 6명을 자문위원으로 총 25명에게 채대진 원장이 위촉장을 증정하였다.



성남문화원

성남문화원 개원30주년 기념식

성남문화원(원장 한준섭)은 7월 4일 오후 3시 분당 컨스타워 7층 대강당에서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대진 성남시의회 의장,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중수 회장과 남선우 경기지회장을 비롯해서 200여명의 성남문화가족이 함께한 가운데 개원 3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문화비전 선언 낭독'에 이어 문화원 발전에 기여한 조명천 초대 원장과 황평산 부원장 등 유공 임·직원에게 표창과 감사패가 수여되었으며 아르피에 앙상블과 문화학교 가야금반의 축하공연과 함께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성남문화를 집대성한 '성남문화원30년사'가 배부되었다. 한편 7월 1일부터 문화원 3층 전시실에서는 성남문화재단 주관으로 '2008 찾아가는 미술관' 성남문화가족 소장전 '서른 해 풍경'이 열렸다. 한준섭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문화는 삶을 담은 그릇'이라는 말처럼 '날로 다변하는 21세기 문화정보화시대에 성남문화원은 지역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돕고, 문화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문화발원지로서 제2의 혁신, 도약기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대가 요구하는 성남시의 전통문화 보존에 보다 충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17회 성남사랑 글짓기대회

성남문화원은 7월 19일 문화원에서 제 17회 성남사랑 글짓기대회를 가졌다. 자라나는 초, 중, 고교생들에게 애乡심과 자기 정체성을 심어주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제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이번 성남사랑 글짓기대회는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성남교육청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는데 관내 각 학교장이 학교별로 10명씩을 추천하여 참가하게 된 이날 대회에서 운문부와 산문부로 나누어 소속 학교의 명예를 걸고 각자 기량을 발휘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각 부문별로 장원의 영예를 차지했다. ()는 출신학교와 작품이름
 산문부문 : 지정연(돌마초, 산이 내게 주는 선물들) 전가림(송림중, 샬롯의 목도리) 이태재(성일고, 남한산성)
 운문부문 : 류재은(서당초, 지하철) 김태양(성일중, 여름) 마한길(성일고, 지하철) 손종인 (일반부, 남한산성)



영월문화원

제7회 문화원장기 게이트볼대회

영월문화원은 지난 6월 24일 영월 동강 둔치게이트볼전용구장에서 영월군 읍·면대항 게이트볼대회를 열고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했다. 대회장인 영월문화원 유성목 원장과 부대회장인 김신경 영월군게이트볼연합회장이 주축이 되어 개최한 이 대회는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맑고 건전한 생활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경로효친 정신을 선양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이날 총 25개팀 192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대회에서 우승은 쌍용분회가, 준우승은 옥동분회, 공동3위에 석항·마차분회가 각각 차지했으며 금강분회와 금마분회가 장려상과 화합상을 받았다.



대전 서구문화원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 · 충청샘머리백일장

우리나라 여성미술의 요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전 서구문화원(원장 박세규)에서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출품이 가능한 여성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까지 총 269점을 접수받아 사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대전 연정국악문화회관에서 전시를 가졌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은 유화부문의 '존재' 오호숙씨가, 최우수상에는 한국화 '계곡' 신현주씨, 수채화 '그곳에 가면' 하순복씨, 서예에는 '다산선생 시' 이영순씨가 각각 차지했으며 이밖에도 5명의 우수상과 특선 32명(한국화 : 8명, 유화부문 : 24명), 10명의 수채화와 서예부문 10명, 문인화 9명 등 총 70명이 수상했는데 이 대회에서 특선 2회 이상 입상자로 작품부문별 총 12점 이상 획득자(매회 입선 1점, 특선 2점, 우수상 3점)는 다음 해부터 초대작가로 예우를 받게 된다. 한편 지난 6월 18일 오후 대전 서구청 중회의실에서 제14회 충청 샘머리백일장 시상식을 가졌는데 지난 5월 둔산동 샘머리공원에서 열렸던 백일장에서 운문(시)부문의 글제는 '저녁노을', 산문부문은 '메세지'를 선택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글을 쓰는 것임에도 참신한 작품들이 많이 선보였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운문부문 금상에 '저녁노을' 이재근(서원초 3년), '열정으로 물든 노을' 서혜정(신일여중 3년), '해질녘의 노을빛은...' 이하영(둔산여고 1년), '해질녘의 기억' 구명숙(서구 평월동)씨가 각각 차지했으며 산문부문 금상은 '메세지 소동' 임지호(갈마초 6년), '지구의 메시지' 정다혜(삼천중 3년), '할머니의 눈물' 김기령(지족고 2년), '어버이날' 박경희(서구 둔산동)씨가 각각 수상했다.



인천 연수문화원

벨로체 기타 앙상블 창단연주회



인천 연수문화원(원장 김원옥)은 지난 6월 28일 인천시립박물관 석남홀에서 '벨로체 기타 앙상블 창단연주회'를 가졌다. 연수문화원 문화학교 각 강좌에서 학습을 받은 수강생들에 의해 여러 반의 동아리가 형성되어 활동 중에 있는데 '벨로체 기타 앙상블'은 기타반 학습동아리로서 2006 인천평생학습축제에서 동아리부문 금상을 수상한 바 있어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날 연주회에서도 '하얀들', '사랑은' 등 독주와 중주, 합주로 기타의 다양한 연주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객석의 많은 박수를 받았으며 이들은 인천 곳곳에 초청되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주부문화 매개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성동문화원

잃어버린 옛 시간여행 '옛 다리를 찾아서'



성동문화원(원장 정진섭)은 지난 7월 12일 관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선시대의 가장 긴 돌다리 평교인 '살곳이 다리'와 현존하는 청계천의 유일한 돌다리인 '수표교', 궁중의 다리가운데 유일한 보물문화재인 창경궁 '옥천교'를 비롯해서 '지당석교'와 수원 화성의 성곽다리로 수문의 기능까지 포함된 '화홍문', 정조대왕이 사도세자 능을 참배하기 위해 축조했다는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홍예석교인 안양 '만안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로 '진천 농다리'에 이르기까지 옛 다리를 찾아가는 체험프로그램을 가졌다. 2008성동구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공모 선정사업으로 네 차례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이 행사는 성동구에 소재하는 살곳이 다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식의 옛 다리들을 기행함으로써 선인들의 소통의 길이었던 다리의 의미를 되새기고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소중함을 자라나는 2세들에게 일깨우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 행사로 인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견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역사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성동구의 지역 특성과 정체성을 살린 평생교육프로그램 조성에도 일조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수원문화원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

수원문화원(원장 유병현)은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초·중·고생 249명을 대상으로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를 가졌다. 매년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능행차길 체험순례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효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 당시의 능행차길을 따라 도보순례로 시작한 첫날은 창덕궁에서 출발, 노량행궁지에서 숙영을 하고 다음날인 28일 시흥·안양·사근참행궁지를 지났으며, 29일에는 정조의 효심이 서려있는 수원 지지대고개를 거쳐 용건릉에 당도했다. 순례 마지막날인 30일에는 수원 화성행궁과 화령전, 화성 성곽 순례를 거쳐 연무대에서 활쏘기 체험을 끝으로 3박4일간의 체험일정을 모두 마쳤다.

정조대왕은 영조의 둘째 아들인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났으며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당쟁의 희생양으로 뒤주에 갇혀 28세의 젊은 나이로 비극의 죽음을 당하자 일찍 죽은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의 후사가 되어 왕통을 이었다.

제21회 수원여름음악축제

수원문화원은 8월 11일부터 4일간 수원시 인계동 수원야외음악당에서 가요와 국악, 락과 클래식의 아름다운 선율이 어우러진 한여름 밤을 수놓은 음악제를 열었다. '한여름 밤의 cool한(寒) 음악여행'을 컨셉으로 열린 이번 음악축제는 건국60주년 기념으로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고 공감하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코너로 진행되었다. 축제 첫째 날인 8월 11일에는 7090세대를 대표하는 인기가수 공연으로 소찬휘를 비롯한 박강성, 조승규, 현진우, 안주연 등이 출연해서 화려하게 막을 열었으며, 12일에는 경기도립국악단과 퓨전국악 '버들'이 출연,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통해 미래를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8월 12일과 마지막 날은 '수원 레인보우경음악단'과 '수원 윈드 앙상블'이 드라마 및 영화 속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했고, 파워풀한 가창력의 소유자 마야와 슈퍼키드, 타카피, 넘버원 코리아 등의 락 공연을 통해 젊음과 열정의 무대를 선보임으로서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번 행사와 관련 유병현 수원문화원장은 '수원을 음악의 도시, 문화 예술의 도시로 가꿔 나감은 물론 음악을 통해 시민들이 서로 이해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 축제를 기획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수원시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산문화원

제24회 하계 청소년충효교실



경산문화원(원장 이덕재)은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간 문화원 강당을 비롯해서 경산시여성회관과 경주 일원에서 하계 청소년충효교실을 가졌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전통윤리와 생활예절 의식을 함양하여 향토애를 고취하고 건강한 청소년문화를 정립시킨다는 취지아래 관내 초등학교 4,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각 학교 당 10명 내지 15명씩 추천을 받아 총 120명으로 청소년충효교실을 구성했다.

경산교육청 교육장과 경산시립박물관장 등 특별강사진을 비롯해서 대구대 이동근 교수, 영남대 전일주 강사, 대구향교 박화자 강사, 장산서예원 박도일 원장, 청소년예술관 김용성 관장, 동방금석문연구회 박휘호 회장, TBC방송국 이도현 아나운서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에 의해 강의가 있는 다음 첨성대, 천마총, 분황사, 경주국립박물관 등 경주 일대를 대상으로 역사탐방과 함께 탁본체험, 도자기 공예체험, 가훈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익산문화원

'2008 가족과 함께하는 익산문화기행'



익산문화원(원장 김복현)은 7월 12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고장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2008 가족과 함께하는 익산문화기행'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미취학 아동을 제외한 선착순 40명을 대상으로 미륵사지 전시관과 함라마을 돌담길, 옛날 남녀7세 부동석의 전통적인 신념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ㄱ'자형 예배당인 두동교회와 김대건 신부 일행이 한국땅을 처음으로 밟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나바위성당 일대의 나바위 성지 등을 둘러보는 문화 역사탐방 시간을 가졌다.

청송문화원

'청송문화원 2008충효교실'



청송문화원(원장 김희목)은 7월 22일부터 2일간 청송초등학교와 영주 일원에서 4, 5, 6학년 초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청송군과 청송교육청 후원아래 '청송문화원 2008충효교실'을 열었다.

입소식과 함께 서미경 청송여중고 윤리담당 교사로부터 예절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며 문화원 김익환 사무국장의 청송고장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청송이야기로 첫째 날 일정을 마치고 둘째 날은 소수서원과 선비촌 그리고 소수박물관이 있는 영주 순흥문화유적권에 대한 역사탐방과 판타시온리조트에서 물놀이를 끝으로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서대문문화원

2008자연생태체험캠프



서대문문화원(원장 김환옥)은 7월 29일부터 1박2일간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소재 지동산촌생태마을에서 '2008 자연생태체험 캠프'를 열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문화소외계층 초·중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의 첫째 날은 캠프 현장인 지동마을에 도착하여 생태마을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오수수 따기' 및 '감자 캐기' 등 농촌체험에 이어 '물고기 잡기' 등의 하천 생태와 '짚짚질', '나무공예 체험'을 하고, 저녁시간에는 우정의 밤으로 캠프화이어를 가졌다. 다음날에는 숲 해설가의 안내를 받아 잣나무 숲 산책과 전국리 선사유적지를 답사하였다.

춘천문화원

'2008여름방학특별기획 내 고장문화유산 현장교육'



춘천문화원(원장 이대근)은 7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내 고장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익히면서 현지답사를 통한 현장교육으로 자라나는 초·중등학생들에게 내실과 현장감 있는 교육을

위해 전문 사학자를 초빙하여 '2008여름방학특별기획 내 고장문화유산 현장교육'을 가졌다.

구한말 의병활동의 선봉에 섰던 유인석 선생 기념관과 춘천 의병마을, 아홉구비를 돌아서 떨어지는 구곡폭포와 선녀와 나무꾼 전설의 등선폭포, 맥국의 얼이 서린 삼악산성, 춘천이 낳은 작가 김유정의 고향 실례마을 등을 둘러보는 코스로 현장교육이 이어졌다.

횡성문화원

여름방학 전통문화체험교실

횡성문화원(원장 김광수)은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에 걸쳐 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여름방학 전통문화 체험학습교실을 열었다.

지역 내 초등학교 4,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체험학습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이 고장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 시켜나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 천연염색과 전통부채 만들기, 민요, 판소리 등 국악배우기, 탈춤 등 우리 춤 배우기, 사물놀이, 한지공예, 전통 떡 만들어먹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에게 전통문화를 가르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천문화원

문화가족 주말문화탐방

이천문화원(원장 이상구)은 지난 6월 28일 문화원 회원 88명을 대상으로 충남 아산지역에 대한 문화가족 주말문화탐방 기회를 가졌다.

예안이 씨들의 세계마을로 격식을 갖춘 양반가옥과 중류가옥, 초가집 등 50여 가구가 집단을 이루면서 450년의 역사를 지닌 외암리 민속마을과 조선 세종 때 청백리로 유명했던 맹사성 정승의 고택을 비롯해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하는 현충사와 수많은 순교자를 내면서 충청남도지방의 선교활동 중심지였던 공세리 성당을 탐방하고 또 아산시 공세리와 평택시 현덕면을 연결하는 2,564m의 아산만 방조제를 둘러보았다.



과천문화원

부안 민속5일장터와 문화유적답사

과천문화원(원장 최중수)은 7월 24일 과천시민 80여명을 대상으로 부안 민속5일장터와 문화유적 답사를 가졌다.

소박한 삶과 조상의 얼이 배어있는 재래장터로 정평이 나 있는 부안장을 견학하고 33Km의 방조제가 끝없이 뻗어있는 새만금간척지와 가령도 배수관문 관람에 이어 변산반도국립공원 채석광과 부안의 명찰이며 백제의 고찰인 내소사를 탐방하는 것으로 유적답사 일정을 마쳤다.



평택문화원

'2008평택세계두드림페스티벌'

평택문화원(원장 오용원)은 지난 8월 6일 평택시청앞 광장에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인 평택농악과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미국, 인도, 이탈리아, 호주, 기니 등 6개국 타악 공연단이 대거 출연하는 '2008평택세계두드림페스티벌'을 가졌다.

공연에 앞서 오전 11시부터 옷다리문화촌에서 세계 각국의 타악기 전시와 함께 이를 만지고 두드리 볼 수 있는 체험 기회도 가졌으며 미니 장승 만들기, 석화공예, 클레이아트 등의 체험코너도 열어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기회도 제공하였다.

또 대중가수인 주현미 씨가 특별출연해 자신의 히트곡을 타악에 맞춰 부르는 '타악과 대중가요의 만남' 이벤트도 마련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오용원 원장은 '국제화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평택시의 비전에 발맞추어 평택농악의 뿌리를 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평택을 세계 타악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인천 남동문화원

'가족과 함께하는 자연, 전통문화체험'

인천 남동문화원(원장 이정박)은 지난 7월 25일 경기도 양평 보릿고개마을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자연, 전통문화체험' 행사를 가졌다.

남동 구민가운데 5세 이상 가족단위로 해서 7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번 행사에서는 두부와 깨떡 만들기, 옥수수 따기, 갯가 물놀이, 경운기 타기 등의 체험 행사를 통해 자연을 체험하면서 가족 간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정선문화원

‘2008여름음악축제’



정선문화원(원장 유경은)은 지난 8월 1일 문화원 쉼터에서 정선 군민과 정선을 찾은 관광객을 위해 영혼의 소리 ‘2008여름음악축제’ 거리 공연을 가졌다.

강릉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여름밤을 아름답게 수놓은 색스폰 연주와 함께 예과도르 출신의 4인조 그룹 ‘로스 안데스’ 그룹의 빠르고 경쾌한 리듬과 멜로디가 구슬프게 들리는 것은 인디오 특유의 정서인 ‘에수’ 때문인가 보다. 그들이 연주하는 아리랑은 우리의 ‘한’과 인디오의 ‘에수’가 어우러진 신의 소리, 영혼의 소리, 자연의 소리가 여운을 남기는데 7080 황경숙 가수가 신나는 통기타 반주에 시원스런 목소리, 귀에 익은 노랫말로 관객 앞에 다가선다.

이렇게 하여 한 여름 8월의 첫날 깊은 밤을 안데스 음악과 대중음악으로 2008여름음악축제, 정선의 명품 축제가 무르익어 갔다. (이은희 정선문화원 이사)

인천남구 학산문화원

‘옛날옛적으로 두벽두벽 - 남구 역사캠프’



인천 남구 학산문화원(원장 이선규)은 8월 8일과 9일 양일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재, 문화공간을 조사하고 탐방하며, 남구라는 도시가 가지는 역사상의 체험과 다양한 예술놀이를 통해 학습하고, 더불어 참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시설을 탐방함으로써 청소년기의 여가시간을 건강하고 의미있게 보내게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초등학교 4, 5, 6년생을 대상으로 남구역사 캠프를 열었다.

먼저 남구의회를 방문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의회 의장님과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제에 대한 체험형 학습에 이어 자료 정리와 연극 연습, 발표시간을 가졌으며 조별 대항 퀴즈, 도전 골든 벨, 공동체 놀이 등으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은 조별 문화지도 만들기 발표 등으로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역사공부에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구리문화원

장애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의 강화도 문화체험



구리문화원(원장 김문경)은 지난 8월 8일 강화도에서 장애인 청소년과 비장애 친구들이 한데 모여 강화도 문화체험을 가졌다. 강화도 자연 체험중장에서 미꾸라지 잡기와 말 먹이주기, 갯벌 체험, 말 달구지타기 등의 체험과 함께 찐 감자 간식으로 추억 쌓기 행사를 가졌다.

다음날은 초지분교에 자리한 초록마당에서 염색공예로 자신들이 준비해 간 옷을 염색해 보고 도자공예로 그릇 만들기 및 석화공예로 예쁜 장식품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비석치기, 새총 쏘기, 제기차기 등 부모님 세대의 놀이체험에 이어 다도를 익히면서 연꽃 차와 다식도 맛보았다.

또 초지진에서는 대포와 성벽 뒤에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옛날 군인들이 외세에 향전하던 모습을 연상하며 오래도록 기억될 강화도 문화체험을 쌓았다.

남양주문화원

한강원류를 찾아 온 가족이 떠나는 여름여행



남양주문화원(원장 이창수)은 8월 6일부터 이틀간 한강의 발원지 및 한강줄기 주변에 분포한 문화유적지를 탐방함으로써 남양주와 탐방지역 간의 문화유대감을 높이고 내 고장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지역 정체성의 확립과 아울러 수자원에 대한 중요성과 자연의 아름다움도 함께 느끼는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시민 80명을 대상으로 남한강의 발원지인 태백 검룡소를 시작으로 해서 석탄박물관, 영월 단중유배지 청령포와 장릉, 여주 명성황후 생가, 남한강과 북한강의 합류지인 두물머리(兩水里)와 팔당수력발전소 등을 차례대로 둘러보았으며 중간 중간에 호국보훈 관련 시설도 탐방하며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키는데도 일조했으며, 특히 이번 행사는 문화유적 답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남양주시에서 후원하고, 의정부보훈지청이 공동주최를 제의해 옴으로서 이들 기관 간에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진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동대문문화원

실버중창단 ‘왕언니 클럽’ 음악방송 출연



동대문문화원(원장 김영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실버문화교실의 실버중창단이 국내 최대의 음악방송인 M-net에 출연하였다.

젊은 층에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케이틀 TV, M-net에 실버세대가 출연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8월 23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방영될 이 프로그램을 녹화 한 ‘왕언니 클럽’은 평균 연령이 64.5세인데도 20대의 선택 <2Ochoice>라는 프로그램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4인조 여성그룹 ‘쥬얼리’를 패러디하여 그들의 히트곡인 ‘베이비 원모어 타임’을 댄스와 함께 완벽하게 재현해 냈다.

원장동정



한국문화원연합회 울산시지회장에 이병우 북구문화원장 추대

한국문화원연합회 울산시지회는 지난 8월 13일 임시총회에서 이병우(李秉雨 65) 북구문화원장을 제3대 지회장으로 추대했다.

신임 이 지회장은 수락 인사를 통해 지역정체성 확립과 문화 발전을 위해 우리 지회가 더욱 분발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임 지회장의 활동을 디딤돌로 삼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피력했다.

이 지회장은 울산공고와 동국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울산중소기업협회회장과 울산처용문화제 추진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오래 전에 주식회사 한국철강을 창업하여 현재 대표이사로 활동하면서 북구문화원장과 울산쇠부리문화축제위원장을 맡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라남도지회장에 정원강씨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라남도지회는 7월 16일 오전 11시 지회 회의실에서 공식 중인 지회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재적 21명 중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수를 득표한 함평문화원 정원강(鄭元强 79) 원장을 신임 지회장으로 선출했다. 제30대 지회장에 선임된 정 지회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43년간 공직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지역 문화원 발전과 지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원 간에 화합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매사에 최선을 다 하자' 라는 좌우명으로 살아온 정 지회장은 1951년에 6년제였던 목포중학교를 졸업하고 완도, 신안, 함평군 과장과 전라남도 수출진흥·관광운수·회계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다음 완도, 신안, 광양, 해남군수를 역임하고 전라남도위원을 거쳐 초대 민선 함평군수를 역임한 행정가로 명예로운 퇴임과 함께 금년 4월부터 함평문화원장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부산 금정문화원장에 강동문씨

금정문화원은 지난 4월 29일 금정문화회관 202호실에서 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2명의 후보자가 경선한 결과 65%를 득표한 강동문(姜東汶 68)씨가 제4대 원장으로 당선되었다. 5월 16일 금정문화회관 귀빈관에서 금정구청장과 금정구의회 의장,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구의회 의원 및 문화원 이사와 대의원 등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강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정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관계 기관 및 회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했다. 부산대 행정대학원과 동의대 경영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을 각각 이수한 강 원장은 자유총연맹 금정지부장을 거쳐 현재 주식회사 하이엔 텍의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인천 남동문화원장에 김기수 씨

인천 남동문화원은 8월 19일 문화원 강당에서 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김기수(金起洙 62)씨를 신임 원장으로 추대했다. 제2대 원장으로 선임된 김 원장은 수락 인사를 통해 '이정박 초대원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문화원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원장동정



울산 중구문화원장에 김 관씨

울산 중구문화원은 6월 19일 문화원 회의실에서 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김 관(金寬 64)씨를 제3대 원장으로 추대하고 7월 7일 울산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 과 기관장을 비롯한 문화원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신임 김 원장은 중구문화원이 설립된 지 8년밖에 안 되는 일천한 문화원이지만 초대 김철 원장의 남다른 열정과 회원들의 노력이 힘입어 훌륭하게 닦아놓은 기초를 바탕으로 한층 더 발전하는 문화원이 되도록 힘써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부산교육대를 졸업한 김 원장은 울산상공회의소 초대 상근부회장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하남문화원장 양인석씨 재선임

하남문화원은 지난 7월 2일 문화원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2명의 후보자가 경선한 가운데 현 원장인 양인석(梁仁錫 73)씨가 56.7%를 득표해 제5대 원장에 당선되었다. 재선임을 받은 양 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하남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애써왔지만 여건 부족 등으로 미흡한 점이 많아 아쉬웠으나 5대원장의 임기동안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 말했다.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한 바 있는 양 원장은 양평, 강상, 분원, 산곡초교 교사를 역임하고 동부실업중학교 설립자겸 교장과 동부실업협동조합 이사장, 국제라이온스클럽309지구 부총재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학교법인 교산학원 성광학교 이사장으로 교육 사업에 헌신하고 있다.



증평문화원장에 최건성씨

증평문화원은 지난 7월 23일 문화원에서 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세 명의 원장 후보가 경선한 가운데 현재 증평문화원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건성(崔建成 66)씨가 55%를 득표 함으로서 신임 원장에 당선되었다. 제5대 원장으로 선출된 최 원장은 입후보자로서의 소신을 밝히는 글에서 문화기반 시설 조성고 고유문화 개발로 다양한 문화육구를 충족하고, 문화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이사회의 활성화, 문화 활동의 자율성 확보, 노령세대의 사회참여, 타문화원과외 활발한 문화교류 추진 등 여러 가지 공약사항을 제시했다. 신임 원장은 청주공고를 졸업하고 국제로타리 3740지구 회장을 비롯해서 증평발전협의회장 등 증평 발전을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30여 년간 삼보인쇄사를 경영해 오고 있다.

원장동정



아우내문화원장에 김준기씨

아우내문화원은 7월 9일 문화원 회의실에서 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2명의 후보자가 경선한 가운데 75%를 득표한 김준기(金駿冀 74)씨가 신임 원장에 선출되었다.

제22대 원장에 선임된 김 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50년 역사의 아우내문화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병천초등학교와 대전중·고를 거쳐 국학대학 사학과를 졸업한 김 원장은 청원군 병천면 산업계장과 아우내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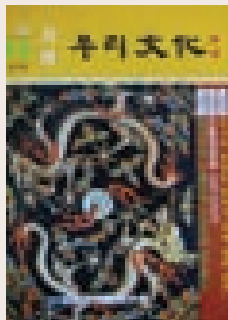
강진문화원장에 김규식씨

강진문화원은 지난 5월 16일 문화원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김규식(金奎植 55)씨를 새 원장에 선임했다. 회원 605명 중 549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2명의 후보자가 경선한 끝에 305표를 얻어 득표율 55.5%로 김 원장이 제8대 원장으로 선출되었다.

6월 20일 문화원 대강당에서 황주홍 강진군수 및 강진군의회 김태정 의장과 군 의원을 비롯해서 여수·광양·고흥 등 인근 문화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신임 김 원장은 '강진문화원은 노, 장, 청, 유, 남녀가 함께하며 직능별 문화, 예술인들이 북적거리는 문화장터로 만들겠다'고 전제하면서 임기를 다하고 떠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소회의 일단을 밝혔다.

한편 도립 남도대학을 졸업하고 조선대 정책대학원을 수료한 김 원장은 전국농민운동총연맹 사무국장과 남촌시문학회 회장 및 문화원 이사로 활동해 왔다.

연합회에서 소식을 기다립니다.



1988년 11월 1일 발행되었던 창간호 우리문화를 기억합니다. 편집도, 내용도, 만들던 사람도, 시대에 따라 많은 것이 변하였지만 그 때의 그 마음만은 그대로입니다. 작은 소리일지라도 귀 기울여 듣고 나누는 데 노력하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 * 모든 원고는 한글·워드 문서로 받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그림 파일은 한글문서에 붙인 형태가 아닌 이미지 파일(jpg나 bmp 등)로 받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파일 용량이 큰 것으로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문화원 소식을 제외한 글은 편집부로 문의하신 다음 원고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집부 02) 704-4311
주간 채강희 010-8631-2809 achae@naver.com
팀장 문선희 011-9017-3486 lune20@gmail.com